

이화동창

2016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 특별인터뷰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오은주 동창





02

07

11

16

이화동창

2016년 겨울 제145호



표지화

오용길(모교 동양화과 명예교수)
이화교정
(화선지에 수묵담채, 62x72.5cm, 1995)

- | | |
|-----------------------------------|--------------------------------|
| 02 2016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 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동창들의 축제 한마당 |
| 07 특별인터뷰 |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 오은주 동창 |
| 11 나의 스승 나의 제자 | 모혜정 물리학과 명예교수와 제자들 |
| 15 모교사용설명서 1 | 소문내고 싶은 옷집 E-FEEL |
| 16 모교사용설명서 2 |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모교 셔틀버스 |
| 18 축하합니다 | 권경주 동창 외 18인 |
| 20 이화의 이곳저곳 | 이대자연사박물관 |
| 24 총동창회 소식 | 소통하고 발전하는 총동창회를 다짐하며 12월 마무리 외 |
| 25 선교부 소식 | 가을 수련회, 에티오피아 국회의장 방문 외 |
| 27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 문화계의 핫 이슈 '최인아 책방' 연 최인아 동창 |
| 30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아프리카에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 |
| 32 만나고 싶었습니다 | 육아방송 이사장 조애진 동창 |
| 35 모교 소식 | 2016 이화 성탄채플 개최 외 |
| 39 대학(원) 소식 | 사회과학대학 외 |
| 42 과(학부) 소식 | 영어영문학과 외 |
| 48 지회 소식 | 남가주 지회 외 |
| 58 동창 근황 | 30주년을 맞이한 이대동창문인회 외 |
| 66 동창이 펴낸 새 책 | 『우울증의 선물』 외 5권 |
| 67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 |
| 68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연회비 납부자 명단 | |

편집위원

김영주(교육 71, 총동창회장)
정준순(약학 72, 부회장)
김광옥(식영 75, 부회장)
송은미(유교 85, 총무)
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김미령(커미부 69)
윤혜숙(커미부 86)
전세영(사학 94)
김민희(국문 99)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보 · 2016년 겨울 145호

발행 2017년 1월 10일 발행 | 발행인 김영주 | 발행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이화여대길 52(이화·삼성교육문화관 8층) | 전화 02-3277-3386~7 | E-mail ewhaalum@ewha.ac.kr
홈페이지 <http://www.ewhaalum.or.kr> | 편집 문화정원 | 인쇄 제이오 | 값 1,000원

이화동창에서 사용한 사진의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 2017 이화여자대학교총동창회 Printed in Korea



2016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The Glorious Story!” 휴스턴에서 열린 북미주 동창들의 축제 한마당

2016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가 2016년 11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약 250명의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이 참석한 가운데 ‘The Glorious Story!’라는 가치 아래 휴스턴 Hilton Houston Post Oak에서 3박 4일의 일정으로 열렸다. 북미주지회연합회(회장 김명옥·경영 75) 총회는 미국과 캐나다에 거주하는 북미주 이화동창들의 가장 큰 축제이자 총동창회와 모교에서 인정하는 연례행사로, 해마다 장소를 달리해 열리고 있다. 같은 기간 제46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도 함께 개최되어 행사장 안팎은 두 차례의 만찬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회 및 정기총회,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특강 및 관광, 주일예배 등 행사가 이어져 이화를 추억하고 이화를 사랑하는 이화인의 열기로 뜨거웠다.

이번 총회에는 행사를 주관한 휴스턴 지회를 비롯, 남가주(LA), 뉴욕, 덴버, 디트로이트, 미시간, 보스턴, 북가주(샌프란시스코), 북캐롤라이나, 북텍사스, 샌디에이고, 세인트루이스, 시애틀, 시카고, 신시내티, 애틀랜타, 오클라호마, 오타와, 워싱턴DC, 클리블랜드, 토론토 등 북미주 각지에서 온 21개 지회 동

창들이 참석하였으며, 김영주 총동창회장과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및 재단 이사 등이 참석하여 북미주지회연합회 동창들과의 화합을 다졌다.

연합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의 이어져

11월 3일(목) 오후 3시부터 호텔 로비에 마련된 안내 데스크에는 파란 셔츠를 산뜻하게 맞춰 입은 휴스턴 지회 임원(고문 유미화·신영일·이영일, 회장 김명옥, 부회장 정미선, 준비위원장 백화정, 총무 구희경, 서기 유민정, 회계 신지혜)들이 북미주 각지에서 찾아온 동창들을 반갑게 맞이하였다. 김명옥 회장은 “12년 전 휴스턴에서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른 바 있는 고문님들의 조언을 토대로 1년 전부터 준비위원회를 꾸렸다”며 행사를 함께 준비한 93명 휴스턴 동창들의 열정에 감사표하였다.

오후 8시부터 리치몬드 룸에서 이사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이사회가 열렸다. 김정희(약학 79·애틀랜타) 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이사회에서, 김영채(영문 59·신시내티) 동창의 ‘고문의 자격’에 대한 발의와 최충자(사회 62·북가주) 동창의 ‘이사의 선임과 임기 개정’에 대한 발의가 통과되었으며, 웹마스터 연임, 해외동창 기금모금 운동, 북미주지회연합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토의가 이어졌다.

한편 11월 5일(토) 오전 8시부터 산 펠리페 룸에서 열린 2016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에는 약 8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동창들을 격려하였으며, 총동창회 홈페이지 개설 안내 및 주소 변경 동창들의 연락을 당부하였다. 이어 각 지회(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보스턴, 북가주, 남가주, 신시내티, 클리블랜드, 덴버, 휴스턴, 뉴욕, 시애틀, 토론토, 오타와) 순으로 사업보고가 이어져 이화의 이름으로 각 지회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특별활동, 친목활동 등의 소개가 있었다. 양승희(사학 73·북가주) 서기의 전 회의록 낭독에 이어 이사회 결의사항 보고, 2015년도 결산 보고, 2016년도 예산 보고가 있었고 회원들의 동의와 제청으로 통과되었다. 장화인(심리 69·뉴욕) 이화국제재단 이사회 이사의 사업보고에 이어 기타 안건 논의가 있었고, 차기 총회 개최지(2017년 뉴욕, 2018년 토론토)에 대한 격려의 박수가 이어졌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위)

김명옥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아래)



1. Marc S. Mullinax 국제재단 이사장 2.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 3. 김성숙 기조연설자



1. 1등 애틀랜타 지회의 합창단 2. 2등 뉴욕 지회의 댄스팀 3. 3등 보스턴 지회의 합창단 4. 인기상을 받은 북텍사스 지회
5. 아차상을 받은 남가주 지회 6. 휴스턴 지회의 축하공연

이 자리에서는 김정희 북미주지회연합회 이사장에 대한 감사패 증정도 있었다.

130년 ‘Glorious Story’ 되새기는 화합의 시간

‘이화인의 만찬’은 11월 4일(금) 오후 6시 30분부터 볼룸A에서 구희경(사회과교육 86) 휴스턴 총무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모교의 김영주 총동창회장,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 및 재단이사, 미국과 캐나다 각지에서 온 약 180여 명의 동창들이 참석하였다. 이영일(의직 72) 휴스턴 고문은 기도를 통해 “먼 길 오신 선후배 동창들이 이곳에서 기쁘고 축복된 시간을 보내기를” 빌었으며, 김명옥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은 “130년 전 한 명의 여학생으로 시작한 이화가 지금에 이른 것이 바로 ‘Glorious Story’ 라며 여기 참석한 동창들도 젊은 날의 비전을 떠올리며 사랑을 나누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하였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한 알의 밀알에서 시작해 지금은 35개 지회, 회원 수 1만여 명의 거대 조직으로 만개한 북미주지회연합회가 자랑스럽다”며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어우러진 휴스턴에서 이화라는 이름 아래 하나가 되고, 서로 다음을 존중하고 화합하는 미덕을 배우자”고 당부하였다. 또한 Marc S. Mullinax 이화국제재단 이사장은 “우리는 퍼즐의 작은 조각이지만 함께하면 큰 그림을 만들 수 있다”며 화합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어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학군단 창설, 인문대 역량강화(Core) 사업, Prime 사업 등에서 모교가 이룬 성과들을 소개하여 참석자들의 박수를 받았다.

한나리(체육 92·남가주) 동창의 진행으로 2부가 시작되어 지회별 텔런트쇼 등 흥겨운 행사가 이어졌다. 1등은 애틀랜타 지회의 합창단이, 2등은 뉴욕 지회의 댄스팀이, 3등은 보스턴 지회의 합창단이 수상



2



3

1.연례만찬과 이화인의 만찬에서 화합과 우의를 다진 북미주 동창들 2.주일예배
3. Museum of Fine Arts, Houston 방문 4.George Ranch Historical Park 방문 5.NASA 방문

하였으며, 북텍사스 지회가 인기상, 남가주 지회가 아차상(애석상)을 받았고 휴스턴 지회는 특별 댄스 공연으로 흥을 돋우었다.

11월 5일(토)은 저녁 6시부터 총동창회에서 준비한 리셉션을 시작으로, 저녁 6시 30분부터 볼룸B&C에서 약 250여 명의 동창 및 관계자가 참석한 ‘연례만찬’이 열렸다. 김명옥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은 “이화 창립 130주년을 맞은 올해 휴스턴에서 총회를 개최하게 되어 영광”이라며 “지난 1년간 총회 준비로 기도하고 설레며 조바심을 냈지만 여기 모인 동창들의 웃음을 보니 행복하다”며 참석자들을 환영했다.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올해는 창립 130주년이자 총동창회 설립 108년이 되는 해”라고 말한 뒤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인용해 “모든 동창들의 기도로 지금 이화가 겪는 시련들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모교를 위한 기도를 부탁하였다. 또한 난민사역 선교사 김성숙 (기악 66·휴스턴) 동창이 기조연설자로 나서서 선각자들이 가진 ‘One Thing’ 즉 한 가지 가치로 인해 오늘날의 이화가 세워졌듯이, 우리도 마지막까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가치를 지켜 나가자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 2부는 이화 휴스턴 앙상블(김인덕·기악 67, 박소운·성악 80, 문미영·관현악/국문 00, 제프리 리)의 연주로 시작되어 이화 휴스턴 사위합창단과 북가주 지회의 <팥쥐가 기가 막혀> 연극, 북미주지회연합회 합창단의 공연이 이어졌으며, 다음 개최지인 뉴욕 지회의 박영숙(경영 86) 회장에게 지회연합회기를 인도하며 행사를 마쳤다.



4



5



각종 특강과 휴스턴 명소 여행으로 우의 다져

이 기간 휴스턴 지회에서 마련한 각종 특강 및 관광 스케줄도 동창들의 인기를 끌었다. 11월 4일(금)은 Museum of Fine Arts, Houston 관람과 George Ranch Historical Park 탐방, 11월 5일(토)은 NASA 방문 일정이 동창들의 호응 속에 조기 마감되었다. 또한 이틀간 호텔 곳곳에서는 김지희 초빙강사의 요가·스트레칭, 노정실(의학 72·휴스턴) 동창의 암 예방을 위한 지식, 양승희(사학 73·북가주) 동창의 한방 세미나, 정진숙 초빙강사의 스카프 매기와 코사지 만들기 등 의 특강이 이어졌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는 11월 6일(일) 오전 8시 30분 김용천 목사(김성혜A 동창 남편, 식영 72)가 인도한 주일예배를 끝으로 2017년 뉴욕 총회를 기약하며 끝났다. 이화 창립의 놀라운 기적이 동창 개개인의 삶에도 놀라운 역사를 증거하기를 바라며 이화동창들은 아쉬운 작별을 나누었다.



2

1. 북미주지회연합회 정기총회
2. 김명옥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이 뉴욕 지회 박영숙 회장에게 연합회기를 건네고 있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이화동창 회비를 납부해 주십시오

이화동창 여러분! 총동창회의 연회비, 평생회비 납부에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회비는 1년에 한 번씩 납부하는 연회비와 평생 한 번 납부하는 평생회비 두 종류가 있습니다. 연회비 대신 평생회비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동창들께서 보내 주신 회비는 총동창회의 장학사업, 회보 제작, 모교 기부금 등으로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회비 납부를 통해 이화 사랑의 힘을 보여 주십시오.

- ◆ **평생회비(납부자는 연회비 면제)** 50만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미만
30만원 – 2017년 기준 만 60세 이상
- ◆ **연회비(1년에 1번씩 납부)** 3만 원
- ◆ **납부 방법** 《이화동창》에 동봉된 지로 및 계좌 이체(신한 100-009-592614, 예금주:이대총동창회)
 - * 송금시 성명, 학과, 졸업연도를 꼭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후원이사를 하실 동창은 동창회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 02-3277-3386~7)



“나를 있게 한 힘은 하나님과 이화 정신!”

2016년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된 오은주(영문 74, 선교사) 동창을 만난 건 갑작스런 추위가 찾아온 날이었다. 해마다 있는 정기검진 때문에 한국에 들어왔다는 그녀는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밝고 미소가 따뜻한 사람이었다.

평범한, 너무나 평범한 그녀

스물세 해 전만 해도 오은주 동창은 시어른을 모시고 아이들 키우는 게 전부였던 평범한 주부였다. 여덟 남매의 맏이었던 그녀는 부모님의 뜻을 한 번도 거스르지 않은 지극히 순종적인 딸이었다. “여자라면 당연히 이대 가야 한다”는 아버지의 뜻에 고민 한 번 없이 따랐던 것도 그런 그녀의 성격 탓이었다. 모범생인 오 동창이 대학 다니면서 벌인 유일한 일탈이라면 기타를 배운 것이었다. 수업이 없는 공강 시간에 YMCA 강사가 일러주는 대로 유행하던 팝송을 따라 부르며 기타를 쳐봤는데 의외로 즐거웠다. 자기 안에 그런 흥이 있을 거라고는 그녀 자신도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강습이 끝나고 무슨 마음인지 기타 학원까지 찾아갔다. 우선 실력을 봄

야겠다는 기타 선생의 말에 오 동창은 선선히 연주를 시작했다. 골똘히 연주를 듣던 강사는 “나보다 실력이 더 나은데, 정말 서너 시간 배운 것 맞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그 후 독학으로 익힌 기타 연주는 나중에 선교활동에 큰 힘이 되어 주었다. 노래를 부르는 사이 서먹하던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되고, 수백 마디 말보다 찬양 몇 소절이 사람들 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 훨씬 효과적이었다.

불교 집안 출신의 그녀가 처음 교회에 간 것은 큰 딸이 네 살 나던 해였다. 어느 날 신경증을 앓고 있던 시어머니께서 “접시물에 코가 깨져도 감사하다니,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가”라며 교회에 한 번 가보자고 말씀하셨다. 남의 말에 끄덕 않는 분이라 처음엔 의아했지만 토 달지 않고 따라나섰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알 수 없는 눈물이 줄줄 흘렀다.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던 인생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시어머니도 “세상에 하나님이 있다면 바로 저분이 그분 같구나” 그러시면서 성경책을 읽고 교회에 꼬박꼬박 나가셨다.

쓰레기 하치장에 울려퍼지는 찬송가

오는주 동창이 선교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은 10년 후였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재기를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남편이 선교활동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다니던 교회 목사님의 권유가 있긴 했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했던 남편이었다.

그때부터 오 동창은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달라며 매일 철야 기도를 했고, 그런던 어느 날 아무도 없는 새벽 2시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요한복음 17:18)’라는 응답을 받았다. 며칠 뒤 먼저 필리핀으로 가 있던 남편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그녀는 망설임 없이 필리핀 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당장 머물 집도, 교회도 없는 빈털터리였지만 열정만은 가득했다.

첫 선교지는 마닐라 시내에서 왕복 7시간 걸리는 오지에다 물도 전화도 학교도 없는 말 그대로 깡촌이었다. 서울내기인 오 동창에게는 처음 보는 낯선 풍경이었다. 편하게 지낼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지만 맞닥뜨린 현실은 상상 그 이상이었다. 하루 한 끼 먹기도 버거운 가난한 사람들의 땅, 내일 들통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해대고, 들키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 그곳이 필리핀의 마비탁이었다.

그녀는 곧바로 코코넛나무로 교회와 유치원을 짓고 무료교육을 시작했다.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배고픔이라도 덜어줄 생각에 밥을 짓고 닭죽을 끓였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도 그들의 시선은 여전히 차가웠고 ‘줄 것도 가진 것도 없는 우리한테 뭘 얻으러 왔지?’ 의심부터 했다. 잦은 태풍과 홍수는 그들에게서 집만 빼앗아간 게 아니었다. 삶에 대



아이들에게 끼니만큼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며 청소년 사역에 힘쓰는 오은주 동창

한 의지, 실낱 같은 희망도 없는 무기력한 삶, 우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게 급선무였다. 그때 가장 도움을 준 것은 고등학생 딸이었다. 어릴 때부터 피아노에 재간이 많았던 딸이 키보드를 치며 찬송가를 부르면 문밖에서 기웃거리던 아이들이 슬금슬금 다가오곤 했다.

그녀는 신앙적으로 더 단단해져야겠다는 마음과 이곳에서 자리잡은 목회자들로부터 도움을 얻겠다는 생각에 아시안 테오로지컬 신학대학원(ATS)에 들어갔다. 그곳에서 제이 목사를 만났고 스모키마운틴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곳은 마닐라 시에서 나오는 쓰레기들을 모으는 대단위 쓰레기 하치장이었다. 보이는 것이라고는 끝도 없는 쓰레기 산, 숨도 못쉴 만큼 지독한 악취, 오물로 질척거리는 그곳에서 대부분은 지붕 없는 비닐천막을 치고 살고 있었다. 최악의 환경을 보자 ‘더 낮은 곳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 같았다.

그녀는 곧바로 사역을 시작했다. 집에서 가져온 낡은 의자가 전부인 천막교회와 그들의 오두막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 하나님 아이들이 찾아오고 그 아이들을 따라 엄마들이 자리를 채웠다. 이상한

건 헛구역질 날 만큼 역하던 냄새도 30분 지나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스모키마운틴에서의 6년 후, 그들 중 몇몇이 정부로부터 35m²씩 땅과 집을 임대 받아 블라칸의 타워빌로 이주하게 되었다. 오동창은 그들을 따라 사역지를 옮기게 되었다.

가가호호 찾아다니며 성도들과 청소년들을 모아 예배를 드렸다. 찬양팀과 악기팀을 만들고 정기적인 성경 캠프를 열었다. 끼니만큼이나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삶의 의지, 미래에 대한 희망이었다. 가난할수록 배움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학업을 계속하고 싶어 하는 청소년들의 배움이 끊기지 않게 장학금을 주고 하나님을 가슴으로 만날 수 있는 음악 교육을 청소년 사역의 목표로 삼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필리핀 생활에도 점점 적응해 가고 있을 때 오동창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다. 어느 날 오후 학교의 캠프장에 있던 아들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마침 남편은 차가 필요하다는 스모키마운틴 교회 청년들을 따라 외지에 나가 있었다. 열악한 경제사정으로 겨우 보건소에 데려갈 수 있었다. 기침과 열이 있어 감기인 줄만 알았는데 아들은 뎅기열에 걸린 것이었다. 혈소판 부족 때문에 당장 수혈이 필요했다. 조금 더 큰 국립병원으로 옮겼으나 그 병원도 열악하기 그지없어서 아들이 뇌사할 때까지 의사 한 명 와보질 않았다. 소식을 들은 한인들이 수혈해 주겠다고 300명쯤 몰려왔다. 그 대열에 필리핀 사람은 당시 오동창이 돋던 제이 목사 한 사람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섭섭하지도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도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온전히 껴안지 못한 자기의 부족을 탓했다.

아들을 잃은 슬픔은 그녀가 믿는 하나님에 계셔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 그녀는 더욱 사역에 매

달렸다. 자신들의 피를 나눠 주려 병원에 와준 고마운 한인들에게 빚 갚는 심정으로 막 태동한 ‘필리핀 생명의 전화’ 교육분과위원장이 되어 상담원들의 정기적인 교육을 책임졌다.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살 만한 곳’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기대’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고 싶었다.

고기 낚는 법을 가르치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태풍에 집이 날아가도 좋으니 내일 먹을 끼니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들은 복음보다 당장의 끼니를 해결하는 게 더 필요한 사람들이었다. 가난을 운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일해야 하고, 노동으로 밥을 얻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쳐 주어야 했다.

박사 과정을 할 때 대학원에서 함께 공부했던 싱가포르 의사 추엔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니, 암화 프로그램이 어떻겠느냐고 했다. 자본이 들지 않으면서 누구나 손쉽게 할 수 있는 일, 딱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교회 마당에 꽃밭을 만들고 산탄, 오픈바이올렛, 작은 해바라기 같은 꽃들을 심었다. 따온 꽃들의 수분을 제거하고, 손으로 액자, 달력, 카드 같은 것들을 만들었다. 차츰 일에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몇십 리 길을 걸어 꽃을 따러 가기도 했다.

한번은 구호물품이 도착해 나눠 주었는데, 교회 일에 꽤나 열성적이었던 엠이 며칠째 보이지 않았다. 알고 보니 그녀가 받은 청바지 안에 한국 지폐가 들어 있었던 모양이다. 그 돈을 빼앗길까 봐 사람들을 피해 다니던 그녀는 며칠 뒤 환전하려고 버스를 타고 은행을 찾아갔다. 그러나 그 지폐는 아이스크림 한 개 값도 안 되는 천 원짜리였으니 버스비 만 날린 셈이었다. 무지한 자신에게, 남의 것을 텁

한 자신에게 모멸감까지 느꼈을 것이다. 그러나 엠은 대단했다. 사람들의 비웃음과 놀림을 끊끗이 견뎌내고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교회 일에 참여하고 신앙생활을 해나갔다. 그런 이들이 하나둘 늘어나면서 그녀는 자신이 택한 이 일에 감사하고 또 감사했다.

필리핀에 세워진 다섯 개의 리조이스교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라는 생각은 그녀가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필리핀 신도들이 그녀를 찾는다는 말에 멀리 블라칸으로 달려갔다. 그곳은 홍수, 화재, 태풍 등으로 살 곳을 잃은 철거민들의 이주촌이었다. 보이느니 바나나 숲뿐이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이 불편하지도 두렵지도 않았다. 뚫린 하늘을 보고 누우면 하늘이 더 가까운 곳이었다. 가진 것 없어도 모든 것이 은총이었고 감사였다. 그녀에겐 힘을 보태 주고 기도해 주는 고국의 지인들도 있고, 무엇보다 교회를 찾고 꿈을 갖기 시작한 원주민들이 있었다. 그들은 마닐라의 세인트헬레나에서 부잣집 담벼락에 텐트를 대고 집 삼아 살던 사람들이었다. 맨바닥에서 예배를 올렸던 산호세 델몬테시티에만 다섯 개의 리조이스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해외 선교 23년 만의 일이었다.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의 수입을 얻는 압화 카드, 달력 제작 외에 일자리 없는 교회 청년들을 위해 더 나은 수입거리를 찾아야 했다. 교회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빵 기술을 배우게 하고, 교회에서 직접 빵을 만들어 교회 어린이들을 먹이고 나머지는 팔기로 했다. 16명의 청년들이 이 일에 참여했다. 1차 빵집은 잡음이 있기도 했지만, 2016년 하반기에 2차 빵집을 냈다. 처음 필리핀에 와서 레깅스바지를 팔

때처럼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일도 없어졌다.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라는 그녀의 말이 몸으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얼마 전엔 필리핀에서는 흔하디흔한 모링가 잎을 가루 내 밀가루에 섞고 인터넷에서 찾은 제조법으로 천연발효액을 만드는 데도 성공했다. 신도들에게 또 다른 귀한 수입원이 될 것 같아 벌써부터 마음이 들썩인다는 그녀.

2009년 3개월 동안 목소리가 안 나오고 까무러칠 것처럼 힘든데 수중에 한국에 갈 항공료조차 없었던 적도 있었다. 그런데도 눈곱만큼도 걱정이 안 됐다.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은 자신을 이대로 내치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교동역자들의 기도와 사랑의 후원, 따뜻한 가족의 보살핌으로 한국에 들어와 치료할 수 있었고 지금은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다는 오은주 동창.

“선교사로 ‘아름다운 이화인’ 상을 받은 건 제가 네 번째라고 하더군요. 딸이 고생한다며 안쓰러워 하셨던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셨어요. 23년 길지 않은 세월이었지만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게 맡겨진 사람들과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함께하지 않은 건 아닌가 매일 저를 되돌아보게 되거든요.”

필리핀에서 크리스마스를 맞아야 한다며, 곧 출국할 거라는 그녀의 뒷모습도 참 따뜻해 보였다.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 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상입니다. 매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고 있지만 2016년 수상자는 2017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할 예정입니다.

물리학계의 대모이자 길을 만들고 이끌어 주신 분



모혜정 명예교수

1939년생. 모교 물리학과 졸업.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 물리학 박사. 1971년부터 2005년까지 모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자연과학대학 장과 대학원장 역임. 저서 『과학과 문화의 만남』, 『에너지띠 이론』 등. '아모레퍼시픽 여성 과학자 상'(2005) 등 수상. 현재 모교 물리학과 명예교수이다.

함께한 제자들(졸업연도 순)

남상택(74) 전 모교 물리학과 강사, 충동창회 감사
심규리(80) 경기대 전자물리학전공 교수
이공주복(81) 모교 물리학과 교수
김혜영(83) 한국체육대 물리학 교수

모혜정 명예교수는 여성 과학자들의 '대모' 같은 존재이다. 여성 과학자라는 말조차 생소하던 시절, 모 교수는 미국 유학길에 올라 한국 여성 물리학 박사 1호가 됐다. 이후 반평생을 여성 물리학자 양성뿐 아니라 한국과학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 여성 대학으로서는 세계 최초로 모교에 공대를 설립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했고, 반도체를 이론적으로 연구하는 데 필수적인 '에너지띠 이론' 분야에서 팔목할 만한 연구 성과를 거뒀다.

그의 공로는 정통 물리학의 경계를 넘어선다. 퇴임 무렵 그가 개설한 <과학과 문화>는 '물리학은 난해하다'는 대중의 인식을 불식시키는 새로운 차원의 강의였다. 이 강의의 인기는 대단했다. 대규모 교양과목으로 11개 단과대학 학생을 그려모은 이 수업은 일방적 강연에 그치지 않았다. 절반은 강연을, 절반은 토론식 수업을 했다. 최근 급부상하는 '거꾸로 수업(플립러닝)'을 15년 전부터 해온 셈이다.

모혜정 명예교수가 강조하는 것은 '마음을 움직이는 과학'이다. 그는 자신의 저서 『과학과 문화의 만남』에서 이렇게 말했다. "과학이 사람들



왼쪽부터 이공주복 동창, 모혜정 명예교수, 심규리, 남상택, 김혜영 동창

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과학의 테두리를 뚫고 나
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위 ‘문화’의 바다 속에
뛰어들어야 한다.”

2016년 12월 7일(수)에 ‘나의 스승 나의 제자’를
위해 마련된 자리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네 명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혜정 명예교수에
대한 존경과 애정이 깊었다. 단순히 학자로서의
존경 그 이상이었다. 학문적 길, 인생의 길을 마
음을 담아 조언해 주는 스승을 향한 감사의 마음
이 삶의 한 부분이 된 듯 보였다.

모혜정 명예교수는 정년퇴임 후 충남 아산에
서 살고 있다. 그는 이 인터뷰를 위해 KTX를 타
고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대담은 태평로에 있는
한 음식점에서 약 2시간 동안 진행됐다.

모혜정 __ 지난 5월에 제자들이 우리 집에 다녀갔
으니 6개월 만이네. 심규리 선생은 작년 물리학
과 60주년 기념식에서 만났지. 그날 서울역까지
나를 데려다줘서 고마웠어. 그렇게 우리 집에 다

녀가면 내 마음이 불편해요. 하루를 통째로 다 쓴
아야 되잖아. 오늘은 내가 움직여서 왔으니 덜
불편하네.

이공주복 __ 아산에 있는 선생님 댁 높은 천장의
거실이 인상적이었어요. 특히 서재 같은 거실,
옥상정원이 너무 멋졌어요.

모혜정 __ 거실에 앉으면 산이 다섯 개나 보이지.
정년퇴임 후 사방을 다녀보고 싶었는데, 아산이
적격이야. 교통의 요지거든. 서울에서 기차로 33
분이면 주파하고 부산, 전라도, 서해안도 가깝
지. 아산에 아무 연고도 없는데, 지도를 보고 답
사가서 한눈에 반했어요. 산도 있고 호수도 있고
괜찮은 주택단지도 있고.

남상택 __ 선생님 댁에 가면 학교에서 주셨던 학
문의 냄새가 고스란히 전해져요. 취선재(翠仙齋)
라는 서재 이름도 선생님과 잘 어울렸어요.

모혜정 __ 이 자리에 모인 제자들은 하나같이 나
와 별난 인연이 있어요. 남상택 선생은 나의 첫 제
자이자, 나의 마지막 수업을 함께 진행했지. <과

학과 문화> 수업에서 나는 강의를, 남 선생은 토론수업을 맡았지. 심규리 선생은 내 전공인 고체 물리학 이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학문적으로 정통 직계 1호인 셈이에요. 졸업 후에는 타 대학 교수가 됐지. 이공주복 선생은 수재예요. 너무 우수해서 1학년 때 내 교수실로 불렸어. 내 강의를 다 들었고, 강의마다 다 수석이었지. 성적 이 너무 좋아서 조기졸업을 했는데, 대학원은 서둘대를 갔어. 이 선생이 하려는 ‘통계물리학’ 분야가 당시 우리 학교에는 없었거든.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학교 교수가 됐지. 김혜영 교수는 1학년 때부터 지도교수를 했는데, 그 많은 학생 중에서 가장 귀엽게 생겼더라고(웃음). 눈동자가 반짝거렸고, 똑똑하고 리더십이 남달랐지. 또 나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내 옷도 요리 보고 조리 보고, 지난번 우리 집에 와서도 장식품 하나하나 관심 있게 보더라고.

김혜영__ 원래 호기심이 많은 성격인데, 특히 선생님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사실 수학과를 가려다가 선생님의 <일반물리학> 수업을 듣고 길이 바뀌었죠. 학부제라 3학년 때 전공을 정했거든요. 선생님이 제 삶의 롤모델이셨어요. 글씨체 뿐 아니라 노트 필기 스타일까지 모든 면에서 닮고 싶었어요.

모혜정__ 그랬어? 김혜영 선생이 나한테 석사를 하고 한국물리학회에서 발표할 때가 생각나요. 비정질 반도체에 대해 발표하는데, 어찌나 또랑또랑하게 잘하던지 내 제자라는 게 자랑스러웠지. 타 대학 교수들이 나한테 와서 칭찬을 할 정도였어.

김혜영__ 선생님이 제 인생의 이정표 역할도 하

셨잖아요. 석사학위 후 선생님과 전공에 대해 상담하면서 제 학문의 방향이 정해졌어요.

모혜정__ 맞아요. 기억나. 체육대학에 자리가 날 것 같다면 박사학위 전공을 상의하러 왔지. 체육이면 물리와 관계 있는 것이 역학이겠다고 판단했어요. 김 선생은 나에게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했지만 내가 양종만 선생한테 보냈어. 좋은 제자라고 다 내 제자로 삼으면 안 되지. 더 맞는 분야로 보내야지. 결과적으로 김 선생이 체육물리라는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게 됐어.

남상택__ 저 역시 선생님으로 인해 인생의 궤도가 바뀌었어요. 남녀공학 대학을 가고 싶었는데 이대에 입학하고 많은 고민을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마침 선생님이 한국 최초의 여성 물리학 박사 1호로서 우리 학교에 오셨어요. 선생님을 뵈면서 마음을 굳혔죠. 굉장히 날씬하고 이지적인 눈매가 빛났어요. ‘와, 우리 과에 이런 선생님이 계시다니’ 자랑스러웠어요. 모든 면에서 선생님을 닮고 싶었어요.

심규리__ 선생님 강의는 감동과 충격이었어요. 물리학을 바라보는 시선이 남다르셨죠. 물리를 계속 하고 싶다는 동기부여를 해주셨어요.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내가 과연 교수님께 받은 감동을 내 제자들에게 줄 수 있을까 늘 고민하면서 강의해요.

이공주복__ 선생님은 당시에 유명하셨어요. 저희 아버지도 신문에서 보시고 “이대 물리학과에 가면 모혜정 교수님이 계시다”고 하실 정도셨어요. 그 당시만 해도 물리학과에 오겠다는 학생이 적었는데, 선생님 수업을 듣고 물리를 하겠다는 학생이 많았죠. 지금도 일반물리학과 양자역학

을 가르치면서 선생님 생각을 많이 해요. 선생님 그거 기억나세요? ‘이루이루찌루삐루’ 하면서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신 것.

모혜정 __ 하하하. 맞아 맞아. 기억나요.

이공주복 __ 돌이켜보면 선생님은 물리학적인 삶 자체를 보여 주셨어요. 저 역시 학생들에게 “Physics is Everything(물리학은 모든 것이다), 뭐든지 물어봐. 물리로 설명해줄 수 있어”라고 하죠. 선생님은 제 물리학자로서의 삶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분이에요.

남상택 __ 선생님과 같이 맡아서 한 <과학과 문화> 가 특히 그랬죠. 선생님 강의는 명료하면서도 기승전결이 확실해요. 또 다음 강의가 기다려지게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마무리하시지요.

모혜정 __ <과학과 문화>는 나도 참 재미있게 했어. 처음 개설하는 강의라 교재도 없이 하려니 공부를 많이 했지. 예술도 공부하고, 과학의 역사도 다시 보고. 나중에 보니 그 강연을 들었다는 학생들이 참 많더라고. 법학과 학생 중에는 그 강의 듣고 물리학과로 전과한 학생도 있었어. 다른 과 학생들에게 과학을 내식으로 요리해서 먹인 셈이야.(웃음)

남상택 __ 다양한 단과대 학생들이 팀을 짜서 조별 토론을 하다 보니 장점이 많아요. 같은 토론 주제이지만 나와 다른 관점을 접하게 되면서 사고의 지평이 넓어지죠.

모혜정 __ 참 좋은 수업이었는데 그 수업을 이을 전공교수가 없어서 결국 없어졌지. 아쉬워요.

남상택 __ 선생님이 부임하신 첫해, 저희 동기들의 야외수업 미수 사건(?)도 기억에 남아요.

모혜정 __ 강의실에 학생이 하나도 없는 거야. 학

생들이 땅땡이를 치려 한 거지. 야외수업을 하자는데 칠판이 없으면 어렵거든. 놀자는 거지. 그땐 너무 화가 났어. 공부하려는 분위기가 아니었거든. 적당히 공부해서 시집이나 가자는 인식이 없지 않았고. 미국에서는 물리학 공부를 밤새워 가면서 해야 되는데, 내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지. 나중에 학생들이 몰려와서 죄송하다면서 우는데 나도 눈물 나더라고.

남상택 __ 연구실에서 고개를 숙이고 계시는데 눈물이 아래로 뚝뚝 떨어지는 걸 봤어요. 우리는 지금도 만나면 그때 일을 잊지 못하고 선생님과의 추억을 떠올려요.

심규리 __ 모혜정 교수님이 그 분야 최고 거장인 캘러웨이의 직계 제자시잖아요. 굉장한 학문적 자부심을 가지고 후학 양성에 대한 열정을 품고 모교에 오셨는데 왜 아니셨겠어요.

김혜영 __ 후학 양성 면에서 선생님의 업적이 크세요. 저만 해도 아무 생각 없이 대학에 갔어요. 목표도 없고, 방향도 없었죠. 혼란이 가득할 때 선생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보여 주셨죠. 여기 계신 선배님들 한분 한분 물리학계의 한 획을 그으신 분들인데, 다 선생님 덕분인 듯해요.

모혜정 __ 내 앞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돌아어서 흉보는 거 아니야? (일동 웃음) 제자들이 나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 나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걸 보면서 보람을 느껴. 내 마음속에는 항상 제자들이 있어요.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요.

진행 및 정리·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소문내고 싶은 옷집 ‘이필’로 멋내기를

ECC 지하 4층 이삼봉 훌 옆 8평 남짓한 공간에 자리한 작은 옷집 ‘이필(E-FEEL)’이 ‘멋을 좀 아는’ 이화인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고 있다. ‘이필’은 조형예대 섬유패션학부 패션디자인전공의 학부 및 석·박사 연구원, 교수들이 뭉쳐 만든 이화의 패션 브랜드. 2005년 가방 브랜드로 시작, 2008년에 지금의 자리에 매장을 내고 옷과 액세서리 신상품을 내놓고 있다. ‘이화’의 이름을 앞에 내건 패션 브랜드는 이필이 처음이자 유일하다.

원단의 질이 순모, 알파카 등 최상급인데 비해, 블라우스 6만 원대, 바지 5만 원대, 코트 30만 원대라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품을 내놓는다는 점이 이필의 자랑이다. 단순한 실루엣, 정교한 디테일, 두 가지 연출이 가능한 리버서블 스타일, 크로스 코디네이션이 가능한 아이템으로 구성되어 있어 ‘격식 있는 옷차림으로 편안한 몸놀림’이 가능하다는 것도 인기 요소 중 하나이다. 매장에 나와 있던 김민아 연구원은 “원단이 좋다 보니 원가를 맞추지 못하는 상품도 있어요. 교직원이나 이화동 칭들이 많이 구매하는데 원단 좋다는 말은 빠뜨리지 않고 하세요. 그리고 실제 입으면 나이보다 젊어 보이면서도 편안하고 세련돼 보인다고 좋아하십니다”라고 단골들의 평을 전했다. 다품종 소량생산이 특징이라 같은 디자인의 옷을 5벌 이상

출시하는 경우도 없다. 때로는 단 한 점 출시되는 세상 유일한 옷도 있다. 원하는 상품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살 것, 자주 들러 신상품을 돌아보라고 이필 단골들은 조언한다.

이필은 패션디자인전공 수업을 실제 패션산업으로 연계한 산학협동과정의 바람직한 결과물로 평가받는다. “패션디자인 전공 학생들이 만든 작품 중 우수한 것을 골라서 상품화하자는 취지로 시작되었어요. 학부 및 석·박사 연구원들부터 전



공 교수까지 함께 디자인에 참여하는데 수업의 결과물을 바로바로 상품화할 수 있으니 학생들의 참여 열기가 매우 뜨겁습니다. 디자인뿐 아니라 생

산 과정, 매장 판매에도 참여 할 수 있어서 학생들은 패션의 전 과정을 직접 체득할 수 있어요. 실제 이를 통해 창업에 성공한 학생들도 많습니다.” 패션디자인연구소장 김정혜(장미 80, 조형대 패션디자인전공) 교수의 말이다.

판매 순이익은 학생들의 장학금으로

내놓는 이필은, 높은 인



기애 힘입어 동대문 패션 메카에서 매장 입점을 제의받기도 했다. 학교 브랜드라는 절차상의 문제로 아쉽게 입점은 못했으나, 이화라는 명성에 걸맞는 좋은 상품을 내놓겠다는 바람은 변함없다. 김 교수는 “학생들에게 산학협동의 전 과정을 알려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를 통해 장학금도 지급하고 학교 이미지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이화가족 카드’를 지닌 이화동창은 5% 할인받을 수 있고, 네이버 밴드(EFEEL로 검색)에 가입해도 같은 할인율을 적용받는다. 2017년 2월 말까지 매장 방문시 선물 추첨권 행사도 진행 중이다. 이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글·이영희(사학 88, 홍보부장)



모교 사용설명서 2 / 모교 셔틀버스

편리한 이동을 도와주는 모교 셔틀버스

폭염이 내리쬐던 어느 날, 교내의 꼭대기 북아현문 근처에 있는 한우리집에 가야 할 일이 있었다. 하이힐을 신고 그곳까지 가야 하다니, 한숨이 절로 나오던 찰나 구원처럼 나타난 것이 있었으니, 바로 셔틀버스!

모교 캠퍼스에서, 혹은 경복궁이나 사직터널 근

방에서 이화여대 로고가 박힌 버스를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모교에도 셔틀버스가 있다. 하지만 셔틀버스가 다닌다는 사실을 모르는 동창들이 많다. 그런 동창들을 위해서 셔틀버스 노선과 운행 시간을 안내한다.

셔틀버스는 두 가지 노선으로 운행한다. 정문을



셔틀버스 운행시간과 노선도

정문 출발	07:50~11:50 13:00~19:00	00, 10, 20, 30, 40, 50(분)
경복궁역	07:40~11:00	00, 20, 40(분)
(1번 출구) 출발	16:10~19:10	10, 40(분)



출발하여 캠퍼스 내를 운행하는 ‘정문’ 노선과 경복궁에서 모교 안으로 들어와 공학관을 지나 다시 후문으로 운행하는 ‘경복궁역’ 노선.

‘정문’ 노선 버스는 주중 오전 7시 50분부터 11시 50분까지, 오후 1시부터 7시까지, 10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경복궁역’ 노선 버스는 주중 오전 7시 40분부터 11시까지는 20분 간격으로 운행하고, 오후 4시 10분부터 7시 10분까지는 매 시간 10분, 40분에 운행한다.

‘정문’ 노선 버스는 정문에서 우측 방향으로 운행한다. 첫 번째 정류장은 ‘조형예술관’. 조형예술관과 자연사박물관, 음악관을 가려면 이곳에서 내리면 된다. 그다음 정류장은 ‘이화·포스코관’. 이화역사관과 진선미관, 아령당을 갈 때 이용한다. 세 번째 정류장인 ‘공대삼거리’는 종합과학관, 아산공학관, 신공학관에서 가깝다. 네번째 정류장 ‘한우리집’에서 내리면 한우리집과 종합사회복지관,

새로 오픈한 기숙사인 E-House에 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정류장은 맨 꼭대기 북아현문 앞 ‘산학협력관’이다. 버스는 산학협력관에서 유턴하여 다시 한우리집과 공대삼거리, 이화·포스코 관, 조형예술관을 거쳐 정문으로 돌아온다.

‘경복궁역’ 노선 버스는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1번 출구에서 출발한다. 첫 번째 정류장은 아산공학관, 신공학관에 가까운 ‘공학관’ 정류장이다. 다음 정류장인 ‘공대삼거리’와 ‘이화·포스코관’은 정문 노선과 겹치는 구간이다. ‘김활란 동상’ 정류장은 본관에서 가깝고, 마지막으로 ‘학생문화관’은 학생식당이 있는 생활문화관과 가깝다. 버스는 학관과 이화·삼성교육문화관이 있는 ‘후문’ 정류장을 거쳐 밖으로 나간다.

운행 시간에 맞춰 셔틀버스를 이용하면 교내 구석구석을 찾아갈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축하합니다



권경주(생물 56) 동창 미 생물학회 '평생공로상' 수상

미국 국립보건원(NIH)에서 근무 중인 권경주 동창이 아시안 여성학자로서는 최초로 미국 미생물학회의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 수상자로 선정됐다. 권 동창은 2017년 6월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시상식에서 상을 받고, 기념 강연을 할 계획이다. 미국 미생물학회의 평생공로상은 지난 1995년 제정돼 해마다 평생을 미생물학에 공헌한 학자 중 한 명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이정형(약학 63) 동창 'Top Contributors to the Asian Community' 2016 봉사상 수상

Northwest Asian Weekly의 연례행사 'Top Contributors to the Asian Community'에서 2016년 커뮤니티를 빛낸 봉사상을 수상하였다. 이정형 동창은 모교 동창회 시애틀 지회를 10여 년간 이끌면서 지역사회에 이화의 정신을 심어 주는 역할을 하였다.



김정자(수학 66) 동창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 수상

LA카운티 노인복지 자문위원장인 김정자 동창이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 해외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김 동창은 2016년 10월 4일(화) 한국 국회의원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0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 및 세계한인교류협력대상 시상식'에서 기념패와 메달을 수여받았다.



이송희(사학 75) 동창 박차정여성운동가상 수상

2016년 11월 10일(목) 제6회 박차정여성운동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이 상은 독립 운동가 '박차정 의사'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여성 지도자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남성희(커미부 78) 동창 아시아 교수협의회장 취임

대구보건대학 총장 남성희 동창이 2016년 11월 7일(월) 아시아 교수협의회장에 취임하였다.



박선희(장미 88) 동창 ‘2016 국제 패션아트 비엔날레 올해의 작가상’ 수상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박선희 동창이 2016년 11월 16일(수)부터 23일(수)까지 개최된 ‘제4회 2016 국제 패션아트 비엔날레’에서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하였다. 박 동창의 출품작 ‘과거는 미래다’는 고 배천범 명예교수를 추모하며 친환경 소재(한지 섬유)를 활용하여 제작한 것이다.



임보영(정외 03)·김소영(영문 11) 동창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최종 합격

‘2016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에서 임보영 동창이 외교전문 분야에, 김소영 동창이 일반외교 분야에 최종 합격하였다. 최종 합격자는 외교관 후보자 신분으로 국립외교원에 입교해 1년 동안 정규과정을 이수한 후 종합평가를 거쳐 공무원으로 임용된다.

2016년 행정고시 수석 합격

인사혁신처가 2016년 11월 9일(수) 발표한 2016년도 행정고시 최종합격자 중 남기인(경제 12) 동창이 재경직에 수석으로 합격하는 영예를 차지하였다. 이밖에도 모교는 대거 합격자를 배출하여, 오정현(경제 09), 김유진(사회과교육과 11), 김민주(정외 13), 권고운(경제 16) 동창이 합격의 기쁨을 누렸으며, 재학생 중에는 김범진(정외 10학번), 김연수(경제 11학번), 김현정(정외 11학번) 씨가 합격하였다.



남기인 동창

모교, 사법시험 합격자 배출 4위

모교가 2016년 사법시험에서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이어 4번째로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법무부가 2016년 11월 11일(금) 발표한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109명 가운데 모교에서는 재학생 포함 10명의 합격자를 배출하였다.

김한나(법학 03), 조현옥(법학 04), 최영비(법학 05), 정지현(법학 10), 곽지현(법학 12), 석지혜(행정 13) 동창이 합격의 영예를 안았으며, 재학생으로 제아름(법학 97학번), 김혜진(법학 06학번), 도은정(법학 07학번), 김애라(법학 09학번) 씨가 합격하였다.

자연과 지구를 배우는 국내 최초의 자연사박물관

ECC 건물의 오른쪽 길을 따라가다 만나는 입학관 뒤 5층 건물, 겉보기에는 여느 건물과 별 차이가 없지만 그 안에는 40억 년의 지구 역사와 하늘에서 바닷속까지의 자연 생태계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이곳이 바로 국내 최초라는 기록과 함께 자연사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기관이나 대학들이 꼭 벤치마킹할 만큼 전시, 교육, 연구, 수집 등 모든 분야에서 선구자적 역할을 해온 이대자연사박물관이다.

“1969년 11월 20일, 노분조 생물학과 교수, 의대 김현규 교수, 약대 이영로 교수님들께서 그 사이 채집해 오던 동식물 표본 655종을 강의실 한쪽에 전시한 것이 이대자연사박물관의 시작이었어요. 그 중에는 1913년에 채집한 노랑뿔잠자리도 포함되어 있으니 100년 전 우리나라 동식물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이죠.”

이대자연사박물관 강지영(생물 89) 학예사의 말이다.

자연과 지구에 대한 학교 교육과 함께 사회교육에 이바지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된 이

대자연사박물관은 1973년 12월 미술관 4층 전시실로 옮겼다가 1997년 5월 29일 지금의 새 건물로 이전 개관하였다. 이로써 상설전시실, 디오라마실, 기획전시실 등 다양한 전시 공간과 항온항습이 가능한 수장고가 확보됨으로써 지속적인 기획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전시물 대부분은 동물·식물·지구 과학 표본이며 그중에는 천연기념물, 국제보호조, 특산종, 희귀종, 신종 표본 같은 희귀품이 다수 있는데



상설전시실 전경

종류별로는 광물 86종 792점, 암석 155종 1,027점, 화석 185종 637점, 식물 1,296종 8만 9,640점, 무척추동물 2,717종 12만 7,087점, 척추동물 753종 5,690점으로 총 5,192종 22만 4,873점에 이른다.

지구 역사와 생태 환경을 보여주는 전시실

연평균 3만 명이 찾는 이대자연사박물관은 상설전시실, 기획전시실, 디오라마실로 이루어진 세 개의 전시실, 각각 지질표본실·액침표본실·식물표본실·건조표본실로 쓰이는 4개의 수장고, 자연사연구소, 미선나무와 매자나무를 비롯한 우리나라 자생식물을 볼 수 있는 박물관 입구의 야생식물원, 교육실로 구성되어 있다.

상설전시실은 식물, 곤충, 무척추동물, 척추동물 I·II, 지구과학의 6개 코너가 있고, 각 코너마다 다양한 소주제에 맞춰 표본 전시와 설명, 그림, 사진이 어우러져 전시되어 있다.

식물 코너에는 해조류를 포함한 각종 식물 표본과 생태 사진 및 모형이, 곤충 코너에는 계통에 따른 곤충 표본과 설명 패널이. 무척추동물 코너에는 원생동물에서 척색동물에 이르는 각 동물군의 표본이 전시되어 있다.

또 척추동물 코너에는 어류·양서류·파충류·조류·포유류 등의 표본과 설명 패널이, 지구과학 코너에는 광물·암석·화석 등이 주제에 따라 전시되어 있다. 독립된 전시장에는 운석과 대륙이동설, 공룡의 일대기, 보석 등을 다룬 전시물이 있고, 상설전시실 중앙 모니터로 <하천이 살아나고 있다>라는 영상물을 감상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살아 있는 생물을 직접 보면 생생하고 친근한 자연을 접할 수 있는 생태 전시 코너를 통해 생물들의 번식과 성장 과정을 볼 수 있다.

특산식물 코너에는 구상나무, 금강초롱꽃, 모데미풀 등 우리나라에서만 서식하는 특산식물의 표본과 사진이 소개되어 있다.

희귀곤충 코너에는 천연기념물인 장수하늘소와 멸종 위기에 처한 상제나비, 산굴뚝나비, 비단벌레 등이 전시되어 있고, 동남아시아산 곤충 코너, 여러 종류의 산호와 산호초의 형성 과정을 볼 수 있는 산호 코너, 공룡알과 골격 화석, 시조새 화석, 익룡 모형 등을 볼 수 있는 코너도 있다. 또 흑두루미, 느시, 황새, 따오기, 팔색조 등의 국제보호조와 우리나라에 두 개뿐인 원앙사촌을 복원한 목각모형을 찾아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4개의 소디오라마 코너에서는 복주머니란·광릉요강꽃·털복주머니 군락, 숲속의 곤충, 남해안의 바닷속, 바닷가의 새 등 생생하게 재현된 생태 환경을 볼 수 있다. 입구의 1층홀에 전시된 암모나이트와 벨렘나이트류 화석 2점은 지구 탄생의 미스터리를 엿보게 해준다.



공룡알 화석



삼엽충 화석



따오기



홍줄나비

Sciodia pratti / Leach
Natural History Museum, British Columbia, Canada

팔색조



홍줄나비

소디오라마 코너



연 3만 명이 찾는 체험형 기획전시

해마다 분야별로 다양한 주제를 선정, 폭넓고 깊이 있는 전시라는 평가를 받아온 이대자연사박물관의 특별기획전은 올해로 벌써 29회째를 맞는다. 특히 전시 때마다 모교 조형예술대학과의 협업으로 만든 쌍방향 형 시각 영상물을 통해 관람객들은 직접 전시 내용을 체험할 수 있다.

가장 많은 관람객을 모으고 사회에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기획전은 2006년 7월 26일부터 1년간 진행되었던 ‘개미제국을 찾아서’. 모교에서 만약 7만여 명이 관람했고, 2010년 6월 11일부터 파주 임진각 경기 평화센터로 옮겨 6개월 동안 8만 여 명이 찾았을 만큼 대단한 호평을 받았다. 이 기획전은 국제 협력을 통해 전문가의 개미 사진 전시회를 전시 코너에 포함시키기도 했고, 전시가 끝난 후에는 다른 국가기관에 전시품을 대여하는 등 다른 기관의 전시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이대자연사박물관의 자체 연구와 조사 활동의 결과물을 반영한 2010년의 ‘생물다양성’ 전시회와 생물들의 색을 이용한 다양한 생존전략, 자연의 색이 생기는 원리, 생물들의 색과 관련된 진화, 빛을 이용하는 생물 이야기를 담은 2012년의 ‘자연의 색’ 전시회는 두고두고 화제가 되었다. 심해 탐사를 통해 최근 심해의 비밀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지난해의 ‘심해’ 특별전은 국내 최초의 전시라는 이유 외에도 동해의 500~1,000m 수역에서 서식하는 34종의 생물 및 지질 표본과 함께 심해생물·탐사에 관한 사진과 영상물, 인터랙티브 체험물 등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2016년의 기획전시는 ‘공학, 자연을 만나다’. 생물의 나노 구조에서 비롯된 특성들, 새의 날개와 비행법에서 영향받은 항공역학, 자연의 건축학자 비버, 딱따구리, 생물들의 에너지 활용 시스템과 생물모방 공학의 발전은 생물의 독특한 기능과 문제해결 능력에서 비롯되었음을 볼 수 있는 전시였다.

어린이와 전문가를 아우르는 교육도 인기

교육도 빼놓을 수 없는 이대자연사박물관의 활동이다. 우리 주변의 생태 변화를 관찰하는 생태탐방, 상설, 기획 전시실의 내용을 깊이 살펴보는 전시 연계 교육, 교정 내 서식하는 여러 종류의 동물·식물·곤충 등을 관찰하는 야외 교육 프로그램, 실험과 놀이가 결합된 탐구 활동

프로그램인 디스커버리 교육, 과학교실, 전문가 초빙 특강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20년 동안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에게 이론과 실험을 통해 물리학부터 환경 교육까지 다양한 분야를 재미있게 다루고 있는 ‘자연사교실’은 과학에 대한 관심과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매번 조기 마감될 정도로 인기가 높다.

관람객들에게 전시 내용을 설명해 주는 도슨트를 양성하는 도슨트 교육(현재 고등학생에서부터 어르신까지 20명의 도슨트들이 활동하고 있다), 표본 제작에 관심을 가진 전공자들을 위한 표본 제작 교육, 박물관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인턴십과 학예사 경력인정 교육도 있다.

이대자연사박물관 자체로도 올해는 꽤 분주하고 의미 있는 한 해였다. 융합인재교육(STEAM) 아웃리치 사업과 박물관 내 소장품을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작업을 해왔다. STEAM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이대자연사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콘텐츠를 이용해 과학 이론과 현상을 경험하고, 토론, 실습, 체험 활동을 통해 진학, 진로 설계에 도움을 주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연구 사업이다. 또 16개의 박물관 방문형과 학교연계형 탐구체험프로그램 개발도 한국창의교육연구원과 함께 했다.

이대자연사박물관 관람은 방학 기간인 1~2월, 7~8월 토요일을 제외하고 월~토요일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가능하며 일요일,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동아리를 포함한 단체관람은 관람일 1주일 전까지 인터넷으로 사전예약(<http://nhm.ewha.ac.kr>, 전화번호 02-3277-4700)을 하고, 도슨트의 전시실 설명도 함께 신청하면 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더 알찬 관람을 원한다면 홈페이지의 관람도우미에서 활동지와 실습지를 다운받으면 된다.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나오는 ‘알면 사랑한다’는 말처럼 전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자연보호, 환경운동은 자연과 지구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용진(생명과학과 교수)관장의 말이다.

도심 안에 위치해 있어 언제 어디서나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문턱 낮은 이대자연사박물관. 자녀들, 손자들과 함께하면 이보다 더 즐겁고 유익한 겨울 나들이가 있을까?



‘공학, 자연을 만나다’ 전시

글·윤혜숙(커미부 86, 이화동창 편집위원)

총동창회 소식

‘2016 이화인의 밤’ 행사 취소

2016년도 11월 총동창회 정기임원회가 2016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4호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총동창회는 역대 총동창회장과 고문단의 자문을 구하고, 임시 부장 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각 대학 회장들의 의견을 확인한 끝에 11월 28일(월)에 예정되었던 ‘이화인의 밤’ 행사를 학교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 자리에서 시상하기로 했던 2016년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2017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기로 하였다.

또한 매년 총동창회와 교목실이 주관하여 동창들이 함께 모이는 ‘이화가족 성탄예배’에 올해는 총동창회는 참여하지 않고, 성탄예배 후 총동창회에서 매년 후원하던 떡값은 성탄예배 현금으로 대체하여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내기로 하였다. 김미

순(기독 75) 선교부장은 이번 성탄예배는 음대에서 주관하여 음악예배로 진행한다고 설명하고, 해외 선교사들에게 보내는 현금에 임원들의 도움을 부탁하였다.

한편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016년 11월 3일(목)부터 11월 6일(일)까지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북미 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 성황리에 행사를 치렀다고 보고하였다. 이 자리에서 2016년 학교의 발전 상황을 설명하고 대외협력처의 협조요청인 ‘Ewha Wave’ 운동도 소개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각 과 역대 동창회장들의 명단과 재임 기간의 제출을 이화역사관에서 요청했음을 임원들에게 알리고 협조를 부탁했으며, 각 과마다 선교부장을 선출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소통하고 발전하는 총동창회를 다짐하며 12월 마무리

12월 총동창회 정기임원회가 2016년 12월 8일(목) 오전 11시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 3층 포시시아홀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총동창회장은 2017년 정기총회는 2017년 3월 11일(토)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라고 공고하였다. 세부 일정

은 2017년 2월 정기 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편 김미령(커미부 69) 사과대 회장은 총동창회 홈페이지에 각 대학 및 각 과 홈페이지를 링크해, 총동창회와 각 대학 및 과 동창회가 보다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하였다.



12월 총동창회 정기임원회

이날 임원회의에는 한종임 모교 대외협력처장(영교과 교수)이 참석하여 4개동 8개관 약 2,500명

을 수용하는 모교 신축기숙사가 2016년 8월 건립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건립기금 중 일반 동창의 참여가 20.6%(49억)라는 것에 감사를 표하였다. 또한 “이화동창 한 명이 월 1만 3,000원의 후원을 약정하면 그 물결이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며 ‘Ewha Wave’ 장학금 정기후원을 임원들에게 설명하고 참여를 부탁하였다.

총동창회는 동창들의 소통과 친목 향상, 모교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하며 12월 정기 임원회를 끝으로 2016년 공식 일정을 마감하였다.

제12회 ‘아름다운 이화인’ 상에 오은주 동창 선정

총동창회는 1994년부터 필리핀 빈민가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오은주(영문 74) 동창을 2016 ‘아름다운 이화인’ 상 수상자로 선정하였다. 오은주 동창은 마닐라 외곽 철거민들이 모여 사는 이주촌에서 5개의 원주민 교회를 개척하여 어린이 및 청소년 교육에 힘써오고 있으며, 원주민들의 자립을 돋기 위해 압화 카드와 캘린더 제작, 제빵 기술을 전수하여 자활의 의지를 심어 주고 있다. 오 동창은 필리핀 오지에서 풍토병으로 아들을 잃었지만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나눔과 섬김의 이화

정신의 실천자이다.

‘아름다운 이화인’ 상은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소외된 이웃을 위해 나눔과 섬김, 봉사의 이화정신을 묵묵히 실천하고 있는 동창을 찾아 격려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총동창회에서 제정한 상이다. 매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지만 2016 수상자 오은주 동창은 2017년 ‘이화인의 밤’에서 시상하기로 하였다. 2015년에는 폐루와 칠레에서 26년 간 의료선교에 매진하고 있는 오주엽(의학 81) 동창이 ‘아름다운 이화인’으로 선정되어 상패와 상금 1,000만 원을 받았다.

선교부 소식

가을 수련회 및 에티오피아 국회의장 방문

2016년 9월 20일(화) 오전 10시 30분 다락방 1층 애찬실에서 선교부 가을 수련회를 개최하였다. 양현혜 교목은 마가 2:13-17, 누가 22:24-27 본문 말씀으로 ‘재판관의 눈과 의사의 눈’이라는 말씀을

전했다. 애찬을 나누고, 오후에는 조를 나누어 ECC 기도실, 중강당, 대강당, 학생문화관, 대학교회, 이화역사관, 한우리기숙사 기도실, 종합과학관, 신공학관에 가서 이화와 동창 선교사들을 위

해 기도하는 기도처 순례의 시간을 가졌다. 총 29명의 동창들이 참여한 가을 수련회에서는 이화 창립 130주년에 공교롭게도 불거진 모교의 불미스러운 일로 마음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이화를 다스려 주시길 빌며, 이화의 초심 회복을 위해 더 뜨겁게 기도했다.

9월 26일(월) 한국에 내한한 에티오피아 국회의장 Abadula Gemedo Dago와 그의 딸이 에티오피아의 장은혜(영교 85, 남편 박종국 선교사) 선교사와 함께 채플에 참석하고, 모교 재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이화역사관과 캠퍼스 투어를 통해 모교의 역사를 안내받고 구석구석을 둘러보았다. 그리고 27일(화) 동창선교부 화요기도모임에 주한 에티오피아 대사 Dr. Shifewa Jarso 와 함께 참석하여 간증을 나누고 교제하였다. Abadula

국회의장은 이화의 창립 정신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에티오피아에도 이화여대와 같은 학교가 세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Abadula 국회의장은 한국에 머무는 1주의 시간 동안 한동대에서 명예 법학박사 학위를 받고, 포항 기쁨의 교회를 비롯한 각 교회에서 간증과 국가조찬기도회 참석 등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Abadula 국회의장, Shifewa Jarso 대사와 함께한 화요기도모임

단기선교 환송예배

2016년 12월 6일(화) 오전 10시 30분 다락방 3층 예배실에서 제36차 겨울단기선교 환송예배를 드렸다. 일본, 에티오피아, 캄보디아, 타이완 등지로 단기선교를 떠나는 노래선교단, CCC, 이화발레앙상블, 선교장학생, 선교지원팀 등 17명 학생들과 각 과, 각 대학 선교부장 등 동창들과 동창 선교사들이 참석하여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을 격려하고 축복했다. 이날 양현혜 교목은 창세기 2:8–17, 3:1–19 본문, ‘생명나무와 욕망의 나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단기선교를 떠나는 학생들이 먼저 어떠한 마음의 나무를 심고 있는지를 살펴도록 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총동창회 정준순(약학 72) 부회장은 격려사를, 필리핀에서 사역하

는 오은주(영문 74) 선교사는 권면의 말씀을 전했다. 특별히 연대와 모교 성악과 재학생들로 구성된 다락방 전도협회 노래 선교단의 특송과 현금송의 순서가 있었다. 노래 선교단의 아름다운 찬양은 단기선교 환송예배의 분위기를 더욱 은혜롭게 하였다.



제36차 겨울단기선교 환송예배



자랑스러운 이화의 얼굴
문화계의 핫 이슈 '최인아 책방' 연 최인아 동창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에 무엇을 할 것인가

퇴근길 정체가 막 시작된 강남 한복판, 책방이 있다는 빨간 벽돌 건물을 쉽게 찾긴 했는데 간판이 없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책방의 문을 여는 순간 예상치 못했던 평화가 찾아왔다. 높은 천장과 탁 트인 공간이 주는 개방감, 큰 매대와 까만 그랜드 피아노 위에 듬성듬성 놓인 책들… 느슨하고 헐거운 공간이 주는 마음의 여유 때문이다.

‘그녀는 프로다. 프로는 아름답다’,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와 같은 히트 카피를 쓴 카피라이터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최인아(정외 84) 동창은 삼성그룹 공채 출신 첫 여성 임원으로 제일기획 부사장을 역임하고 은퇴했다. 타고난 카피라이터, 타고난 광고쟁이일 것이라 추측하며 그녀의 30년 제일기획 시절에 대해서 묻자 뜻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사실 하고 싶었던 일은 기자였어요. 그런데 기자 시험에 떨어진 거예요. 그때 제일기획 공채 광고가 있었고 거기에 붙었죠. 딱 1년만 근무하고 그다음 해에 다시 기자 시험을 볼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시작한 일이었는데 발을 뺄 수 없을 만큼 재미가 있었어요.”

최 동창은 도망가지 못하고 14년을 일하고 나서야 그 일이 내 일이라고 받아들였다.

“중매 결혼한 사람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요? 같이 살기는 하지만 열렬히 사랑해서 한 결혼은 아니었던 거예요. 하지만 십몇 년 살고 나니까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는 순간이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최 동창의 학창 시절은 어떠했을까.

“저는 1~2학년 때까지는 저의 전공과목인 정외과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이 뚜렷했어요. 그런데 3학년이 되고 단과대(정외과) 학생회장으로 일했던 경험이 저에게는 전환점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전까지는 공부를 하겠다는 생각만 했는데 학생회장이 되어 단과대 일을 하면서 공부가 아닌 무언가 다른 ‘일’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최 동창은 교양과목 책 가격이 비싼 점에 착안해서 중고로 책을 구입한 후 적은 수수료를 받고 판다든지(웃음), 학생회 포스터 작업을 위해 카피라이팅을 하는 등의 학생회 활동을 예로 들었다. 공부가 아니라 이런 일에도 재미를 느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는 것이다. 그 1년이 인생에 꿩

장히 큰 변화를 가져왔음을 강조한 최 동창은 그 렇기 때문에 어떤 일에 대한 경험이 자신을 변화 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항상 열어놓아야 한다고 했다. 최 동창은 사진작가 양리 카르티에 브 레송이 ‘인생의 결정적 순간’이라고 부르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학교에서는 여자와 남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같아야 한다는 당위를 배우지만 사회에 나가 보니 남자와 여자는 결코 같지 않았어요. 여자가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라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 저의 첫 번째 ‘결정적 순간’이었어요. 그때 대한민국 최고의 광고대행사라는 제일기획도 여직원에 대한 호칭이 ‘미스 최’였고 커피 심부름은 다반사, 아침에 책상을 닦는 것도 오롯이 여직원들의 몫이었어요. 그때 생각했죠. 어떻게 할 것인가, 이들을 적으로 여기고 갈 것인가.”

최 동창은 그 순간 적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단번에 이런 시각을 뒤집을 수 없으니 3년에 뒤집을 수 없으면 6년, 그리고 그 시간을 5년으로 줄이고 다시 4년으로 줄이자고 결심했다. 시스템 자체를 고치기보다 개인으로 하나의 전례를 만들자는 생각을 했다. 바로 그 전례가 최 인아 자신이다. 최 동창과 같이 입사했던 50명의 동기 중 여성은 단 4명, 그중 살아남은 사람은 그 하나였다. 최 동창은 계속 ‘최초’라는 수식어를 달고 대리, 과장, 차장 그리고 임원이 되면서 스스로 ‘최초’의 전례가 된 것이다.

최 동창에게 두 번째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온 건 임원이 되고 마흔 중반이 된 즈음이었다.

“늙는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산티아고 순례를 떠났죠. 물론 다시 복귀해서 6년을 더 일하기는 했지만요.”



최 동창은 이때부터 은퇴 후의 삶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사실 은퇴 후에는 일을 하지 않고 학생으로 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은퇴 후에 대학원에 입학했어요. 물론 제가 제일 나이 많은 학생이었고 지도교수는 저보다 네 살이 어렸어요. 그런데 지도교수님이 저에게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게 어떻겠냐고 조언하시더라고요.”

최 동창은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먹고 창업을 준비했다. 처음에는 하던 일이 광고였으니 광고대행사를 할까 생각했다. 그러던 차에 어떤 업체에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책을 읽도록 할 수 있는지 그녀에게 의뢰를 했다.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 대행하는 일만 했으니 이번만큼은 내가 직접 뭔가를 해보자. 책을 읽도록 만드는 솔루션을 찾을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책방을 하자.”

이런 불황에, 게다가 종이 책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마당에 동네 책방이 되겠느냐는 세간의 우려에 대해서는 의문을 품지 않았다.

“하고 싶은 일은 별이고 그것을 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길’은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

요? 해봐야 길이란 게 생기고 그다음 길이 보이는 거죠. 책방을 한다니까 다들 내가 이미 성공한 사람아니까, 어느 정도 기반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한다고들 해요. 하지만 시작은 다 마찬가지예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거예요. 왜 돈이 넘쳐나는데도 기업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걸까요? 저는 기업 오너 3세들의 배경이 대부분 미국 NBA이고 숫자가 그들의 근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숫자는 늘 보수적이거든요.”

이런 시점에 왜 하필 책방이냐고 물을 뻔한 질문도 그녀의 확신에 슬그머니 녹아버렸다. 최 동창은 지금 자신이 가장 주목하는 것은 ‘시간’이라고 했다. 인생의 잔고에서 ‘시간’도 돈처럼 줄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이 시점에 중요한 질문은 ‘진짜 우선 순위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이제 중요한 건 ‘왜 책방이냐’가 아니라 ‘어떤 책방이냐’ 하는 것이다.

“저는 ‘방’이라는 어감이 주는 공간성과 확장성이 좋았어요. 책이 중심이 되는 공간이지만 책만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문화를 지칭하는 공간이죠. 살롱, 혹은 서재와 같은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책방을 열더라도 콘크리트 빌딩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 찰나 때마침 이곳을 발견한 거예요. 인테리어도 별도로 하지 않았어요. 본래의 구조 그대로를 이용했죠. 다만 가구는 고급스러워야 한다고 고집했죠.”

최인아 책방은 그녀가 의도한 대로 누군가의 우아하고 고급스런 서재에 와 있다는 느낌을 준다. 높은 천장, 쾌적하고 탁 트인 실내, 1~2인용 테이블과 고급스런 의자, 본래 거기 있었다는 까만 그랜드 피아노까지. 그래서 책방은 책이 있는 방이면서 다시 책을 통한 토론이 열리는 공간이

되고, 강의를 듣는 공간, 때로는 연주회가 열리는 공간으로 확장된다. 소모임을 할 수 있도록 대여도 해주고 독자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주기도 한다. 책방의 위치상 주중에는 직장인들이 주 고객이지만 주말에 가족들이 많이 찾는 것에 착안해 어린이를 위한 책 읽기 교실도 열 생각이다. 연말에는 책방을 통째 대여해서 음식을 곁들인 송년회를 열 수도 있다.

최인아 책방의 또 하나의 특색은 1,600여 장의 ‘북카드’. 처음에는 최 동창의 지인들에게 숙제로 내주었다. 좋아하는 책을 추천하고 추천한 이유를 작은 카드에 쓰게 해서 카드를 만들었다. 이제 북카드는 고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으며 고객들이 직접 쓰고 추천하는 시스템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다른 서점에 없는, 최인아 책방에만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지만 쉽게 가질 수 없는 라이프스타일 그 자체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것이 최인아 책방의 존재 이유가 아닐까.

최 동창은 마지막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고자 하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전했다.

“점점 더 그 사람만의 개별성, 고유성이 중요해질 겁니다. 당장의 유·불리가 아니라 자기다움을 고민하고 찾아서 그 방향으로 쭉 나아가길 바랍니다.”

최 동창이 직접 고른 5,000여 권의 책들, 손 글씨로 쓴 북카드가 꽂혀 있는 최인아 책방은 그녀가 말한 그대로, 고유성과 개별성을 믿고 자기다움을 잃지 않으려는 노력의 산물이다.

글·전세영(사학 94, 이화동창 편집위원)

아프리카에 내리는 하나님의 평강

샬롬! 오랜만에 아프리카 소식을 보냅니다. 날이 갈수록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2016년 9월에 사위(김호재)와 딸(안혜연)이 이곳을 열흘간 다녀갔습니다. 함께 사역지를 돌아보고 기도하며, 유치원 벽화도 그리고, 아이들과 뛰놀며 행복한 시간들을 갖게 되어 무척 감사했습니다.

올리브교회 교회학교에서 선물한 노란 티셔츠는 우리 모두에게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샷노란 티셔츠를 입은 아이들이 햇병아리처럼 얼마나 예쁘고 귀엽던지요. 올리브교회와 이곳 아이들, 선생님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다시 느끼며 감사가 넘쳤습니다.

새 학기를 맞이한 유치원에 새 식구가 많이 늘어 총 93명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지혜를 구해 봅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교실 안팎을 수리하고, 페인트로 새 단장을 했더니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늘 교실 벽을 바람막이로 삼아 점심을 지었는데, 내달이면 조그만 부엌이 하나 탄생합니다. 할렐루야~!

추마무레푸 교회 건축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 건물 빼대와 지붕 작업은 이미 끝났고, 비가 오는 대로 흙벽 작업과 문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교회 의자도 새로 만들었는데 성도들이 무척 좋아합니다. 추마무레푸는 타나 강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므로 주변 마을에 비해 특별히 더 건조한 지역입니다. 지하수 또한 짠 물이라 우물물을 식수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탱크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붕에 빗물 집수 장치를 설치하여 물탱크에 모아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식수를 사서 마셔야 하는데, 물탱크가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살 수 있어 짠 값에 살 수 있습니다. 성도들과 마을 사람들이 물탱크의 물을 함께 마시며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건축 중에 마을 주변에 사자 세 마리가 나타나서 모두들 조심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은 베팔로 떼가 마을 주변을 자주 어슬렁거린다고 합니다. 진행 중인 모든 작업이 안전하게 마무리되고, 마을 사람들이 보호받기를 기도합니다.

지난 8월 마둥구니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알리스’라는 소녀를 만났습니다. 중학생인 알리스는

귀신이 들려 죽으려고 자꾸 강가에 간다고 했습니다. 담임목사인 필립 목사님과 저희 부부, 그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더러운 귀신은 알리스에게서 떠나가라. 아멘~!”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고, 반항하던 귀신은 한참만에야 떠나갔습니다. 알리스는 곧 잠잠해졌고 지쳐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알리스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쁜 소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강가에 가지 않는답니다. 예수 이름을 높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글·정송(의직 81) 동창

♥ 기도해 주세요 ♥

1. 골반리 바나바 유치원

-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 친구들을 사랑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특별히 무슬림 선생님과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 4개 부족 아이들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 유치원 부엌이 들판하게 지어지도록

2. 골반리 교회

- 교회 보수작업 및 화장실 건축이 잘 이루어지도록
- 12월 초 예정인 침례식에 모든 것이 잘 준비되도록
(미깅고 교회, 추마무레푸 교회와 함께)

3. 미깅고 빛의 교회

- 조셉 담임목사님 가정이 평안해지고 교회 사역에 방해받지 않도록
- 현재 마을에 학교가 없는데, 내년에 유치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4. 추마무레푸 교회

- 아데 담임목사님 건강을 위하여
- 교회 건축 및 물탱크 설치가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도록

5. 마동구니 교회

- 마을에 귀신들린 자들과 주술사들이 많고, 영적 전쟁이 치열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속히 영접하

고,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 현재 학교 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교회 건축 준비가 잘될 수 있도록

6. 각 교회의 신학생

- 이번 학기에 위 교회 성도 중 총 5명이 GMI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토마스, 쏘쏘, 심바, 마이클, 필립 형제가 신학 과정을 끝까지 공부할 수 있도록

7. 미전도종족

- 오르마 부족에게 복음이 속히 전파될 수 있도록
- 실질적인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현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8. 저희 부부와 가족

- 하나님의 평강과 자유로 서두르지 않고 당당하게 사역을 감당하도록
- 아프리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을 항상 잊지 않고 겸손하게 사역하도록
- 열린 마음으로 늘 연합 선교에 힘쓰도록
- 친정 부모님(정현철, 송혜숙)이 예수님 잘 믿고 건강하시도록
- 2017년에 결혼을 앞둔 아들 안성환과 예비 며느리 한규비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아직 불신 가정인데 결혼이 순박하게 이루어지고 이들로 인해 모두 예수님 믿는 가정되도록

만나고 싶었습니다 / 육아방송 이사장 조애진 동창

“산아제한 정책 반대하시던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았어요”



“한 아이를 기르는 데에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습니다.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은 단순히 부모만의 일이 아니에요. 가족과 마을, 국가가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육아방송 본사에서 만난 조애진(커미부 66) 동창의 첫 마디였다. 말투는 따뜻했지만 시급함과 간절함이 뚝뚝 묻어나는 말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불거지면서 ‘5,000만 인구 지키기’가 국가 아젠다로 부상한 만큼 조 동창이 이끄는 육아방송의 역할과 사명감은 커지고 있다. 조 동창은 육아방송 이사장 외에 ‘한국 모유수유넷 회장’이라는 굵직한 직함을 하나 더 가지고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엄마 젖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자라는 일. 이 지극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 점점 전통 가족의 모습으로 떠밀리는 모양새이다. 조 동창은 ‘삼포세대’ 이야기를 꺼내며 아쉬워했다. “연애, 결혼, 가정을 포기한 소위 ‘삼포세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모도, 고모도 없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혼자서 삽박하게 살아가는 ‘나홀로족’도 증가하고요. 비단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조 동창은 “집보다 가정을 꾸리는 것이 먼저”라며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당시 신문학과) 62학번 동기들을 예로 들었다. 지금도 동기들을 종종 만나는데, 처음부터 번듯한 집을 갖추고 시작한 동창은 거의 없다고 한다. 살면서 하나하나 갖춰 갔고, 그 과정에서 자잘한 행복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중요한 것은 물질보다 마음”이라며 “신뢰와 사랑이 기본인데, 이 당연한 이야기가 당연하지 않은 세상이 돼 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국회보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낸 아버지

조애진 동창이 출산의 중요성을 일찌감치 갈파한 것은 친정아버지의 영향이 크다. 연세대 의대를 나와 내과의사였던 아버지 조영선 씨는 국회 보사위원회 전문위원을 지냈다. 당시 국회에서 산아제한 법안을 제정하려 하자, 아버지는 강력하게 반대하셨다 한다. 1960년대 중반, 조애진 동창이 대학생 시절의 일이었다.

“아버지는 늘 아이를 많이 낳아야 미래가 밝다는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국회에서 산아제한 법안을 만들려는 움직임을 보고 테이블을 ‘탕탕!’ 치면서 한탄하셨죠. ‘집안이 망하려면 자손이 부족

하고, 나라가 망하려면 아이를 낳지 않는데, 우리나라가 망하게 생겼다' 면서요. 결국 아버지는 집권당과 뜻이 맞지 않아 보사위원회 전문위원직을 그만두셨어요."

당시를 회상하던 조 동창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산아제한 운동이 힙쓸 때였다. 또한 정부가 불임수술을 장려했다. 수십 년 후를 내다보고 출산정책을 세우자는 목소리는 통할 리 만무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조 동창 아버지의 말이 맞았다. 조 동창의 눈물은 선견지명이 있었던 아버지, 지금은 안 계시는 아버지의 뜻을 깊이 헤아려 그 길을 가고 있는 딸의 심경이 복잡다단하게 얹힌 눈물이었다.

조애진 동창은 책꽂이에 세워둔 두 개의 사진액자를 꺼내왔다. 하나는 연세대학교 교복을 입은 아버지가 어머니와 나란히 찍은 흑백사진이고, 또한 장은 3대 14명이 다 함께 찍은 조 동창의 가족사진이다. 들여다보니 사진 속 숫자가 재미있다. 조 동창 부부, 그리고 아들 셋, 며느리 셋, 손자 셋, 손녀 셋. 3333이다. 아들 셋이 결혼해 약속이나 한듯 아들 하나 딸 하나씩 낳아 탄생한 환상의 조합이다. 손주들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로 나이가 엇비슷해서 같이 만나면 친구 이상으로 잘 어울린다. 조 동창의 맏아들 배호영 씨는 육아방송 대표로 있다. SBS PD 출신의 배 씨는 어머니의 취지를 읽고 기꺼이 합류했다고 한다.

〈모유의 신비〉 방송 대상 수상

2016년 10월 22일(토), 육아방송은 예술의전당에서 '2016 육아방송 태교음악회'를 열었다. 출산을 기다리는 부부 280여 쌍을 초청한 무료공연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김대환, 첼리스트 이강호, 소

조애진

1944년생. 모교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신문학과) 66년 졸업
1981년부터 인천 대한적십자사에서 활동
적십자여성자문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적십자 장기봉사상' 수상(2010년)
현 육아방송 이사장 및 한국 모유수유넷 회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저출산대책위원회 회장

프라노 서활란, 하퍼스트 김아림 등이 연주자로 나섰다.

"특히 한국 모유수유넷 홍보대사인 바이올리니스트 백현경 씨는 다섯 아이를 둔 다등맘인데 여섯째를 임신해 불룩한 배로 무대에 올랐죠. 너무 아름다웠어요. 태교음악회 오신 분들도 그 자체로 감동을 줍니다. 배가 불룩한 예비엄마들이 남편 손을 꼭 잡고 관람하시거든요."

육아방송이 2006년에 방영한 〈모유의 신비〉는 방송대상을 수상했다. 모유수유의 장점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방영한 프로그램은 모유수유에 대하여 과학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단순한 캠페인을 넘어 시청자들의 신뢰를 샀다.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이 아이큐가 더 높다는 연구도 있고, 모유수유를 한 아이들이 우유를 먹은 아이보다 폭력성과 자살률이 낮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육아방송에 대한 인지도는 대중적이지 않다. 국내 유일의 출산·육아방송으로서 매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공익방송으로 10년째 선정되고 있지만 정부 지원금도 없다. 개인 기업이지만 국가의 대체인 출산 장려에 일조를 하는 등 공익성을 띠고 있어 유관 기관을 통해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성과는 내지 못하고 있다. 또한 케이블 TV와 IPTV의 특성상 회사와 지

역마다 채널 번호가 달라 일관성 있는 홍보에 한계가 있는 것도 문제이다.

세 자매가 모두 이화여대 동창

조애진 동창은 세 자매가 모두 모교 동창이다. 큰언니 조경자 동창은 교육학과를 1962년에 졸업해 영어교사를 지냈고 현재 얼굴박물관 관장이다. 작은 언니 조혜자 동창은 불문과를 1964년에 졸업해 스위스에 있는 페스탈로치 빌리지에서 교사 겸 중앙일보 통신원을 지냈다. 조혜자 동창은 이승만 전 대통령의 며느리로, 이인수 박사의 아내이다.

“아버지가 이대에 대한 호감도가 높으셨어요. ‘여자라면 이대’라는 인식이셨죠. 손주 중에도 이화유치원을 나와 이대부속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가 있고, 조카 중에도 모교 출신이 꽤 있어요.”

각각 두 살 터울인 세 자매는 동시에 이화 교정을 밟지는 못했다. 두 언니가 대학생일 때 그는 고등학생이었고, 그가 모교에 입학했을 때에는 큰언니가 졸업한 뒤였다. 그래도 세 자매는 모교 근처에서 자취하면서 쌓은 추억이 가득하다.

“당시 월성당이라는 빵집 뒤에서 자취를 했어요. 이사벨라라는 옷가게에서 큰맘 먹고 한 벌에 2만원짜리 옷을 사던 기억도 납니다.(웃음)”

가장 기억에 남는 강의로는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김동철 교수의 사진 수업을 꼽았다. “제가 신문학과 3회 졸업생인데, 동기들도 사진 수업이 가장 재미있었다고 해요. 암실에 들어가면 앞이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목소리만으로 동기들을 구별하면서 다니던 기억이 두고두고 생각납니다.”

또 하나, ‘영어회화’도 잊지 못한다. 정식 강의가 아니라 청강으로 들은 수업이었다. “학관 복도에서 영문과 학생들의 영어회화 수업을 구경하고

있었어요. 수업을 마친 교수님이 나오면서 저더러 관심 있냐고 물어보시더군요. ‘베리 머치(Very Much)’ 했더니 다음 시간부터 수업에 들어오라고 했어요. 연세가 많은 ‘미스 칸로’라는 교수님이셨어요. 학칙도 걸리고, 다른 교수들 눈치도 보였을 텐데 배움에 대한 열망 하나만 읽고 허락해 주신 교수님께 두고두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전문직 여성다운 카리스마가 넘치는 조 동창은 사실 30년 가까이 전업주부로 살았다. 60세에 발을 디딘 육아방송이 그의 첫 직장이다. 세 자녀를 제 손으로 키우겠다는 일념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커리어우먼으로서의 모습은 먼 훗날로 미뤄뒀다. 하지만 마음은 전업주부가 아니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신념으로 늘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3종의 신문을 매일 읽고,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자기관리를 해왔죠. 지식 면에서나 감성 면에서나요. 또 30여 년 동안 적십자사에서 다양한 봉사활동을 했는데, 이 활동을 통해 많은 걸 배웠어요.”

그가 처음부터 이사장직을 맡은 것은 아니다. 2005년에 육아방송을 인수한 후 3년간 부족한 것을 채우는 시간을 가졌다. ‘이만 하면 조직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이 선 다음에야 이사장직을 수락했다. 그는 “후배들에게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라며 이런 말을 남겼다. “서두르다 보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아요. 다만 실력은 구비해둬야죠. 준비만 돼 있다면 아이들을 길러놓고 시작해도 지장 없어요. 무엇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눈부신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글·김민희(국문 99, 이화동창 편집위원)

2016 이화 성탄채플 개최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첫날인 2016년 12월 1일(목) 오후 6시 30분 모교 대강당에서 ‘성탄을 기다리며’를 주제로 ‘2016 이화 성탄채플’을 개최했다. 교목실(실장 양명수)이 주관하는 이번 예배에는 재학생, 교직원, 동창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탄을 미리 축하하고 기쁨을 나눴다.

예배는 이해인 수녀의 기도시 <당신만이 빛이 시오니>를 동명의 재학생 이해인(중어중문) 씨가 낭독하고, 모교 외국인 유학생 Rebecca 씨와 Maureen 씨가 <I Know Who I am>을 부르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어서 모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합창단 이화챔버콰이어(지휘: 박신화 교수, 성악)가 <Jingle Bells>, <Sleighride> 등 흥겨운 캐럴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예수는 나의 힘이요> 등 성가곡을 불렀다. 또 관현악 전공 재학생들로 구성된 이화오케스트라(지휘: 성기선 교수, 관현악)가 <호두까기인형 중 행진곡>, <Christmas Festival> 등 특별 연주를 선보였으며, 이화오케스트라의 반주로 신지화 교수(성악)와 이화챔버콰이어가 <오, 거룩한 밤>

을 불러 대미를 장식했다.

공연 막간에는 장윤재 교목이 세 가지 성탄 이야기를 전하며 이화인들이 평범한 일상을 통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을 주고 생명의 등불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흔히들 ‘위대한 인물’이 되어야만 세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소한 일상 속에도 다른 사람에게 큰 기쁨과 행복을 줄 수 있는 ‘위대한 기회’가 숨어 있음을 강조했다.

예배 종료 후에는 2009년부터 이화채플을 통해 후원하고 있는 한국컴패션 해외 어린이 10명에게 보낼 성탄 카드를 작성하는 따뜻한 시간을 가졌다.



이화여대 학군단 창설

모교는 2016년 11월 1일(화) 육군학생군사학교(이하 학군교)와 학생 군사교육에 관한 협약을 맺고 학생군사교육단(ROTC, 이하 학군단)을 정식으로 창설했다.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3시까지 ROTC관에서 개최된 행사는 현판 제막식, 협약식, 학군단 창설식의 순서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모교 학군후보생 30명을 비롯하여 학군교 이승도 학교장, 이찬우 행정부장, 신철호 모교 학군단장, 송덕수 총장직무대행, 김봉진 기획처장, 정현미 학생처장, 최유미 총무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학군단 창설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요구하는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 요구에 부응하고 △우수한 여성 인재들의 군 장교 진출 기회를 확대해 양성평등을 구현하며 △여성 특유의 전문성과 섬세함을 갖춘 정예 초급 여군 장교의 체계적 양성 교육을 확대하고 △다양한 전공의 우수 여성 인력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모교는 2016년 2월 학군단 유치 대학으로 선정된 이후, 3월부터 8월까지 학부 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2.4 대 1의 경쟁을 거쳐 30명의 학군사관 후보생을 선발했다. 강도 높은 체력검정과 심층면접, 인성검사 등 엄격한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된 후보생들은 이날 창설식에서 진·선·미의 이화정신을 바탕으로 리더십을 가진 우수한 여성 장교로 성장할 것을 다짐했다.

후보생들은 2016년 하반기 신축돼 뛰어난 교육 인프라를 갖춘 ROTC관에서 2017년 1월부터 본격적인 군사교육에 돌입한다. 학군교에서 실시하는 2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마친 후보생들을 대상으로 2017년 2월 말 입단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제16회 김옥길 기념 강좌 ‘여성의 미래와 대학교육’

이화인문과학원(원장 송기정)은 2016년 11월 17일(목) 오후 3시 30분 ECC 이삼봉홀에서 ‘제16회 김옥길 기념 강좌’를 개최했다. 이번 강좌는 특별히 캐나다 명문 토론토 대 철학과 교수이자 잭맨 인문학 연구소(Jackman Humanities Institute) 초대 소장인 로버트 갑스(Robert Gibbs) 교수가 연사

로 초빙돼 강연을 진행했다.

‘김옥길 기념 강좌’는 여성 교육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해 헌신한 김옥길 선생(1921~1990, 이화여대 8대(1961~1979) 총장)의 뜻을 기리고, 이 시대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0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다. 김옥길 선생은

모교 총장, 문교부 장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한국의 여성 교육과 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했다.

올해 행사는 송덕수 총장직무대행의 인사말, 김옥길 기념 강좌 소개 동영상 상영, 송기정 이화인문과학원장(불문)의 연사 소개, 로버트 깁스 교수의 강연,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로버트 깁스 교수는 누구나 쉽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대학은 학생에게 ‘연구하는 법’, 즉 비판적 성찰을 통해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배우고자 탐구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음 세대의 사람들을 돌보고 책임진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녀양육과 대학교육은 서로 통함을 지적하며 여성 고등교육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연구(지식의 탐구)는 대학의 울타리를 벗어나 학생들이 소속된 사회공동체와 양방향으로 소통함으로써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역설했다.

이어서 모교 정덕애 교수(영문)의 사회로 연세대 김형철 교수(철학), 모교 이준엽 교수(수학)가 동일한 주제로 토론을 펼치며 21세기 새로운 도전에 직면한 모교가 한국 여성 교육의 산실로 이어져 내려온 교육이념을 통해 미래 어떠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학부모 포탈 홈페이지 모바일 버전 구축 및 운영

모교 학생처(처장 정현미)는 학생 관련 기본정보 열람, 각종 학교 행사 안내, 민원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 포탈 홈페이지의 모바일 버전을 2016년 11월 21일(월) 개설했다.

모교는 지난 3월 학부모들이 자녀의 학교생활에 큰 관심을 보이는 추세에 발맞춰 학부모를 위한 인터넷 페이지인 학부모 포탈을 개설한 바 있다.

학부모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학부모 관련 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한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구축된 포탈에서는 △학생 관련 기본 정보 △주요 행사 안내 및 소식지 발송 신청 △등록금 고지서 및 연

말정산용 교육비 납입 증명서 조회·출력 △학부모 대상 교내 프로그램 열람 등이 가능하다. 학부모가 학교 측에 의견을 낼 게시판도 배너로 링크돼 기존의 학교 홈페이지에서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롭게 구축된 모바일 버전을 통해서는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 및 태블릿 PC 등을 이용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였다. 서비스 내용은 기존 웹 버전과 동일하며, 포탈 이용을 원하는 학부모는 재학생 자녀로부터 학부모임을 인증받아야 한다. 성적 등 학생 관련 기본 정보

는 학생 의사에 따라 열람이 제한될 수 있다.

학부모 포털(<http://parent.ewha.ac.kr>)은 PC 접속 시 PC 버전으로, 모바일 접속 시 모바일 버전

으로 연결된다. 관련 문의는 모교 학생처 학생지원팀(02-3277-2064, service@ewha.ac.kr)으로 하면 된다.

‘이화인이 함께하는 사랑의김장 나누기’

모교 학생처 사회봉사팀은 2016년 11월 24일(목) 생활환경관 지하 2층 학생식당에서 ‘이화인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누기’ 행사를 개최했다.

2016년으로 5회를 맞이한 ‘사랑의 김장 나누기’ 행사는 모교가 2001년부터 16년째 이어오는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웃사랑의 정신을 실천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개회식에서 정현미 학생처장은 “바쁜 와중에도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환영한다”며 “김장값 폭등으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이 겨울나기가 더욱 힘들어졌다 하여 이화인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하였다”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사회 곳곳에 나눔과 섬김의 이화정신을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재학생 100여 명과 교직원 50명, 서대문구 자원봉사자 10명이 참여하여 3,500kg의 김장을 담갔다. 담근 김치는 서대문구의 한부모, 조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희귀난치성 환자, 홀몸노인 가정 등 소외계층 350가구에 10kg씩 전달되었다. 김장이 끝난 후에는 본인이 만든 김치를 맛보기도 하고, 수육과 겉절이로 점심식사를 하는 등 일반

적인 가정의 김장문화를 고스란히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가한 학생 중에는 외국인 학생들도 많아 눈길을 끌었다. 언어교육원에 재학 중인 아만나 알드헤이리(Amna Almheiri·아랍에미리트) 씨는 “평소에 김치를 좋아하고 잘 먹는데, 직접 만들어본 것은 처음이라 즐겁고 신기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홍노을(환경식품공학·16학번) 씨는 “그동안 김장을 직접 해볼 기회가 없었는데 생각보다 힘은 들지만 좋은 일에 기여한다는 생각에 보람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로 참가한 정인주(화학·나노과학·16학번) 씨는 “일손이 부족해 준비하는 과정에서는 조금 힘들었지만 많은 분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학생처 사회봉사팀은 ‘사랑의 김장 나누기’ 이외에도 다양한 ‘이화인이 만드는 아름다운 세상’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11월 22일(화)부터 12월 2일(금)까지 교내 후원금 모금행사를 통해 모은 성금은 서대문구 소외계층 청소년들의 장학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11월 22일(화)부터 2017년 1월 30일(월)까지 세이브더칠드런과 함께 ‘사랑의 모자뜨기’ 행사를 진행한다.

사회과학대학

회장__김미령(커미부 69)

학장 및 주임 교수와의 간담회

2016년 11월 24일(목) ECC 지하 케세이호에서 최은봉(정외과 교수) 학장 및 정은경(문정과 교수) 부학장, 각 과 전공 주임교수들과 각 과 동창회장이 간담회를 가졌다. 모교 측에서는 최 학장을 비롯, 8개 학과 주임교수가 참석했고, 동창회 측에서는 김미령 회장과 이양준(정외 70) 고문을 포함해 10명이 참석했다.

김미령 회장은 “학교가 아직도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는데 동창회 임원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작은 힘이지만 모교

가 정상화하는 데 동창회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8월 함인희 학장 후임으로 취임한 최은봉 사회과학대 학장은 “뜻밖의 모교 사태로 지난 10월에 갖기로 했던 이 모임이 오늘까지 늦춰졌다”며, “아직도 해결은 어렵지만 얼굴을 맞대고 차근차근히 수습의 길을 모색하고 있는 모교 사정을 임원 여러분께 전하고 싶어 자리 를 마련했다”고 답했다.

정은경 부학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에서는 각 주임교수들의 과 소식과 교수 활동 소개가 있었고, 동창회는 지난 여름부터 11월까지 모교에서 불거진 여러 사태에 동창회가 확실한 활동을 할 수 없었던 안타까움을 얘기하고 하루 속히 모교의 평온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 간담회를 위해 모교 측에서는 전공별 교원 현황과 보직 교수, 재학생 현황 및 장학금 지급 현황, 각종 국가고시 합격자 현황 및 사과대 20주년 기념행사 내용 등의 자료를 마련하여 동창회 임원들에게 제공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사회과학대 출신 2016년 외교관 후보자 선발 최종 합격자가 2명, 5급 공무원 공채에서 7명이 최종 합격했다.

해마다 봄과 가을 두 차례 정례적으로 갖는 이 간담회는 사회과학대의 아름다운 전통이 되고 있다.

간담회 후에 동창회 임원들은 모임을 갖고 2017



사회과학대 동창회 임원과 학장 및 주임 교수와의 간담회에서 최은봉 학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년 2월로 임기가 끝나는 11대 회장에 이어 사과대 동창회를 이끌 차기 회장은 사회복지학과가 맡는 데 모두 동의했다. 따라서 한인영(사복 72) 사회복지학과 동창회장은 사회복지학과 동창회를 통해 2017년 1월까지 차기 동창회장을 선임하여 현 임원진에게 통보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9월 19일(월) 모교 재학생 정지수(사회복지학 전공 2학년) 씨와 김현진(심리학 전공 4학년) 씨에게 사과대 동창회 장학금 100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음악대학

회장_ 임진(작곡 72)

졸업 50주년 동창들 모여

음악대학 졸업 50주년을 맞은 동창들은 2016년 5월 31일(화) 모교 창립기념식이 끝난 후 옛 음악대학 건물을 바라보면서 50년 전을 회상하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이화 창립 130주년 모금 캠페인’을 대외협력처에서 펼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즉석에서 130만 원을 모금하였다. 이후



음악대학 졸업 50주년을 맞이한 송숙호(기악 66) 동창 외 14명의 동창들이 신인령 전 총장(왼쪽에서 8번째)과 기념촬영을 하였다

에도 ‘이화 창립 130주년 모금 캠페인’에 10여 명이 계속해서 ‘Ewha Wave’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 음악대학 동창회는 이화의 발전과 새로운 모습의 이화를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앞으로도 이 캠페인을 펼쳐나갈 예정이다.

사범대학

회장_ 신경희(수교 77)

김애마 선생 20주기를 기리며 추모예배

2016년은 모교 총장서리(1946~1949)를 지내고, 대한민국 최초로 사립대학 안에 사범대학을 신설하여 18년간 학장을 역임한 김애마 선생의 20주기가 되는 해이다.

2016년 10월 5일(수) 경기도 파주시 기독교상조회 공원묘원에서 김애마 선생의 제자와 교직원, 동창들이 모여 추모예배를 가졌다. 예배는 성효현 학장의 약력소개와 안인희(교육 49) 모교 명예 교수의 당시를 그리는 추모사에 이어 제자들의 회고와 감사의 이야기가 이어지며 따뜻한 축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신경희 사범대학 동



김애마 선생 추모예배에서 동창합창단이 특송을 부르고 있다

창회장은 “어려운 현 이화 사태에 김애마 선생의 리더십이 아쉽고, 반가운 이들을 한자리에 모이게 해준 선생님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찬송으로 함께한 동창들에게는 사범대학의 창립정신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

약학대학

회장_ 박하영(약학 77)

제53회 정기총회 개최

2016년 9월 21일(수) 오전 11시 선정릉역에 위치한 수담 한정식에서 임원 및 각 기대표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임원 및 기대표회가 열렸다. 회장 인사 및 경과보고에 이어, 올해의 이화인으로 선정된 약학과 신성주, 제약학과 김채균 동창을 축하하며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계보고와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소후원회, 개국동문회 등 경과보고와 함께 각 부 보고의 시간을 가졌고, 10월 총회에 대한 준비사항과 약대건축기금 현황 보고를 통해 동창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하였다.

10월 24일(월) 오전 10시 30분, 잠실 롯데호텔월드 3층 크리스탈 볼룸에서 제53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퇴임한 약대 은사들과 대한약사회, 서울시 약사회 회장과 각 대학 약대 동창회장 등 총 245명이 참가하여 서로를 격려하였다. 수고한 전임 정용희(약학 75) 회장에게는 감사패를, 자랑스런 대한약사대상, 여약사대상 등을 수상한 동창들에게는 축하패를 수여하는 시간도 가졌다. 특히 졸업 50주년을 맞는 17기(1966년 졸업) 동창들의 재상봉과 축하식을 통해 선배들이 걸어온 한걸음 한걸음이 오늘의 약대를 만든 원동력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17기 동창들은 율동을 곁들여 노래 <어머나>를 불렀고, 문화부 합창단이 <행복을 주는 사람>으로 화답하며 분위기를 한층 훈훈하게 만들었다.

오찬 이후 열린 총회에서는 동창회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 회계보고, 감사보고와 각 부 보고가



1박 2일의 일정으로 단합대회를 개최한 간호대학 동창들



약학대학 53회 정기총회에서 졸업 50주년(1966년 졸업) 동창들이
<어머나>를 부르고 있다

있었고 주홍장학회, 약학연구위원회, 전국개국동문회 경과보고가 있은 후 임원들 전원이 앞으로 나가 인사를 했다. 4부 화합의 시간에는 오카리나, 피아노 연주, 댄스팀의 화려한 율동으로 흥겨운 시간을 갖고 김숙자 모교 명예교수의 건강체조로 참석한 모두가 하나되는 시간을 가졌다. 마지막으로 동창들이 기증한 풍성한 선물로 행운권 추첨시간을 가진 후 교가제창으로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과(학부) 소식

과(학부) 순서로 게재

영어영문학과

회장__김혜정(72)

영학회 추계강좌 개최

2016년 10월 13일(목) 영문학회 임원들은 추계 강좌를 위한 준비 모임을 가진 데 이어, 10월 21일(금) 모교 이화·삼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서울 대 주경철 교수를 연사로 초청해 추계강좌를 열었다. 118명의 동창이 참석한 이날의 추계강좌는 김혜정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하여, 방혜성(82) 동창의 은혜로운 기도 후에 <문명의 과거, 현재, 미

래>에 대한 강의가 이어졌으며, 질의 문답 시간도 가졌다. 또한 맛난 오찬과 대화, 친목, 기념촬영



영학회 추계강좌에 참석한 영문과 동창들

등으로 선후배 간, 동기 간 우애를 나눌 수 있었다. 추계강좌를 마친 뒤 동창들은 가을의 정취를 흡뻑 담고 있는 모교 교정을 걸으며 뒤풀이도 하였다.

사학과

회장 _ 한혜련(75)

간사회 및 가을 정기 답사

2016년 9월 22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었다. 7~8월의 여름 방학을 보내고 오랜만에 모인 자리인 만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반가운 인사들이 오고갔다.

10월 27일(목) 충청북도 보은 속리산에 위치한 법주사로 가을 정기 답사를 다녀왔다. 속세를 떠난 곳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조용하면서도 웅장한 산 속에 자리 잡은 사찰에서 국보급 유물을 감상하고 가을의 정취를 흡뻑 느낄 수 있었다.

11월 24일(목) 용수산에서 간사회를 열고 지난 한 달 동안의 활동 보고와 앞으로의 동창회 발전 방향에 관해 논의했으며 선후배 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였다.



법주사로 가을 정기 답사를 떠난 사학과 동창들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회장 _ 석영인(77)

커미부 선배들의 재능 기부

'2016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워크숍 및 전공의 밤 – 인지과학과 진화하는 커뮤니케이션' 행사가 2016년 11월 9일(수), 10일(목) 양일간 모교 ECC 극장에서 열렸다. 행사는 첫째 날은 장대의 서울대 자유전공학부 교수의 특강으로, 둘째 날은 커미부 선후배들의 대화의 장으로 특화하여 진행되었다.

특히 둘째 날은 선배들이 진로 선택과 관련된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솔직하고 심도 있게 전달하여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한 것은 물론, 선후배 간의 거리를 좁힌 의미 있는 시간으로 평가되었다.

후배들을 위해 기꺼이 시간과 재능을 기부해 준 동창들은 다음과 같다.

최수형(82, KBS), 김은성(85, NST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현정(93, KBS), 윤선영(93, SBS A&T), 임정아(94, JTBC), 서윤경(95, 한국인체조직기증지원본부), 박내선(00, 서울디자인재단), 이지은(00, Institute of Communication Strategies),



ECC 극장에서 열린 커미부 워크숍 및 전공의 밤 행사

정은승(00, KBS), 김지연(02, SBS), 이주영(05, KBS), 공세현(06, CJ 오쇼핑), 공윤선(08, MBC), 기원선(10, KPR), 오은설(16, 성주재단), 정현민(Sony Pictures Television).

사회학과

회장_오숙영(77)

신임회장과 임원진들 모임 가져

사회학과 동창회는 2016년 10월 12일(수) 강남 남포면옥에서 오숙영 신임회장과 함께 임원 동창회를 가졌다. 전임 김자혜(74) 회장 후임으로 선출된 제19대 회장 오숙영 회장의 임기는 2016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2년이다. 부회장 김모란(78), 총무 엄명숙(83), 회계 이재완(84) 동창은 유임되었다.

고문단으로 새로 추대된 김영복(63), 김양경(65), 표경희(66), 양옥남(67), 박춘호(70), 이근원(71), 윤명근(72), 최영희(73), 김금래(75) 동창 등과 더불어 사회학과 동창모임은 격월 둘째 주 수요일에 열린다.



오숙영 신임회장과 임원 동창회를 가진 사회학과 동창회

사회복지학과

회장_한인영(72)

1회 졸업생 선배와 막내 후배가 한자리에
사회복지학과 동창회는 11월 24일(목) 이화·삼
성교육문화관 806호에서 송년모임을 갖고 선후
배 동창 80여 명이 모여 이화인의 긍지를 가지고
서로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1기 졸업생
박보희(51) 동창과 2017년 졸업생 이다혜(17) 동창
이 함께할 수 있어 더욱 뜻깊었다. 이 자리에서 삼
성행복대상 수상자 한상순(72) 동창에게 꽃다발
을 증정하며 축하하였다. 한인영 회장은 2017년
학과 창립 70주년 행사를 위해 동창들의 적극적
인 참여와 협조를 구하였다.



송년회 모임에서 이화인의 긍지를 다진 사회복지학과 동창들

동양화과

회장_이숙진(85)

스승 추모전 후원 및 학부 졸업전 참석

현대 한국화 발전에 큰 공을 세운 고 황창배 교
수 추모전을 모교와 동덕여대에서 함께 주관하였
다. ‘황창배–무법의 법을 그리다(부제: 황창배–



현조 이유태 선생 탄생 100주년 기념전이 열린 이화아트센터



'이서전'에 참여한 서양화과 동창들

‘이화화인’ 전시는 2016년 9월 6일(화)부터 17일(토) 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제자와 동료들이 동참한 가운데 큰 관심과 격려 속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또한 동양화과는 모교 동양화과 교수로 30년간 재직한 근대 동양화의 거두 현조 이유태 선생(1916~1999)의 탄생 100주년을 기념하는 기념전을 10월 25일(화)부터 11월 5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주최하였으며 이를 동창회에서 후원하였다.

11월 22일(화)부터 26일(토)까지 열린 학부 졸업 전시의 오픈식에 동창회 임원진들이 참석하여 축 하와 격려를 하였으며, 예비 동창의 발전과 안녕을 위해 축하금을 전달하였다.

서양화과

회장 __ 차명임(82)

제44회 ‘이서전’ 개최

2016년 11월 2일(수)부터 7일(월)까지 가나인 사아트센터에서 제44회 ‘이서전’을 개최하였다. ‘이서전’은 모교 서양화과 동창들의 전시회로 2년에 한번씩 열린다. 44회를 맞이한 ‘이서전’에는 102명의 동창이 참여하였다.

조소과

회장 __ 이선희(81)

제33회 이화조각회 정기전

조소과 동창으로 이루어진 ‘이화조각회’가 2016년 10월 18일(화)부터 22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 1, 2층에서 33번째 정기전 ‘조각에게 길을 묻다’를 개최하였다.

54명의 회원들이 짊음을 구가했던 모교에서 펼쳐진 조각마당 오픈행사에는 모교의 최병상 명예 교수, 박일순(74) 명예교수, 원인종 조형대 학장, 김종구 교수, 최은경(79) 교수, 박숙영(80) 교수와 학부 및 대학원 후배 등 많은 귀빈들이 참석하여 특별한 교감을 나누었다.

제33회 이화조각전에 참가한 동창들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정자(66), 최효주(69), 이종희(71), 한계원(72), 박일순(74), 심인자(74), 황지선(74), 이해원(76), 고혜숙(77), 임영란(78), 김영란(79), 김종희(79), 김희경(79), 신은숙(79), 최은경(79), 박애란(80), 이선희(81), 나진숙(84), 조미연(84), 박신정(85),



이화조각회 정기전을 개최한 조소과 동창들



이화섬유예술전에 참석한 섬유예술과 동창들

이정미(85), 이경희(86), 정미숙(87), 주이향(87), 김선미(88), 이수정(88), 장회준(88), 호해란(88), 김선영(89), 김정연(89), 이정원(89), 지연신(89), 이영송(90), 장선아(90), 김연(91), 차종례(92), 김서경(94), 김양선(94), 조은희(94), 백인정(96), 오정선(96), 이지은(97), 박은선(98), 강선구(99), 안경하(99), 차경화(00), 김순임(02), 이재순(02), 장유정(02), 조재영(03), 김유희(08), 신정원(08), 이정서(12), 김다슬(15).

로서 전통, 현대 자수 작품을 비롯한 염직, 텍스 타일 디자인, 실용 섬유 소품, 섬유조형, 퍼포먼 스영상 등 광범위한 섬유 작품들이 다양하게 출 품되었다.

수많은 섬유예술작가와 교육계, 산업계에서 활 발히 활동하는 졸업생을 배출한 섬유예술과의 기 량을 선보인 전시였으며, 오픈일에는 역대 동창 회장들과 선배·후배들이 신입 동창들과 함께 어 우러져 전시를 축하하였다.

섬유예술과
회장 _ 봉지희(85)

경영학과
회장 _ 서지희(85)

동창전 ‘이화섬유예술전’ 개최
섬유예술과 동창회에서는 2016년 11월 29일(토)부터 12월 3일(토)까지 이화아트센터에서 동창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제6회 ‘이화섬유예술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전시는 ‘섬유예술의 맥과 열’이란 부제로, 오랜 역사를 가진 예림원 자수과에서 조형예술대학 섬유예술과로 발전해 온 전통과 정신을 계승하자는 의미로 개최한 것이다. 타 대학과는 달리 자수조형교육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학과

이경인의 밤 행사를 마치고
2016년 9월 20일(화) 저녁 6시 ECC 이삼봉홀에 서 제3회 이화 경영인의 밤을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에는 경영학과 재학생 150여 명과 각계 각 부서에서 열심히 자신의 일과 역량을 펼치며 자랑스럽게 살고 있는 졸업생 25명과 김성국 경영대학 학장 및 경영학과 교수 등이 참석하였다. 예쁘고 멋지게 단장한 학생회 임원들과 싱그러운 미소로 인사를 나누며 모교, 재학생 학생회, 동창회

가 마련한 기념품이 가득 든 선물 바구니를 들고 각자의 이름표가 적혀 있는 테이블에 착석하면서 행사가 시작되었다.

첫 순서로는 김성국 경영대학 학장의 축사와 서지희 동창회장의 격려사가 있었으며, 다음 순서로는 멘토로 참석한 경영학과 동창들의 유쾌하고 유익한 자기소개가 있었다. 또한 동창 대표 멘토로 뽑힌 황진선(90, 제닉 부사장), 임현정(91, 화이자 제약 전무) 두 동창의 힘 있는 15분 오프닝 스피치는 경영인의 밤 행사를 더욱 뜨겁게 만들어 주었다.

모교에서 준비한 저녁식사와 차, 과일을 맛있게 먹고 본 행사인 멘토와의 대화 시간이 있었다. 동창 멘토 1명 당 7~8명 정도의 재학생 멘티가 한 테이블에 둘러앉아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서로 묻고 대답함으로써 40여 분의 시간이 쏟살같이 지나갔다. 서로가 아쉬워하며 연락처를 교환하였는데, 이 시간 이후에도 멘티-멘토로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학생들이 준비한 깜찍한 춤과 노래는 다시 한번 즐거움을 주었으며, 마지막 순서로 행운권 추첨 시간이 있었다. 해가 거듭될 수록 한 명 한 명 동창들의 사랑과 관심이 보태져 다양하고 풍성한

경품을 나눌 수 있었다.

경영학과 동창회는 임혜란(경영 78) 경영대학 동창회장과 서지희 경영학과 동창회장을 큰 축으로 경영대학 학장, 예비 동창인 재학생 학생회 임원들까지 아우르며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고 행동하고 있다.

식품영양학과

회장 정조인(83)

‘식품영양학과 50주년 동창장학금’ 전달

식품영양학과 동창회는 2016년 9월 28일(수) ECC 내 소회의실에서 식품영양학과 장학금으로 1억원을 모교 한종임 대외협력처장에게 전달하였다. 이 장학금은 ‘식품영양학과 창립 50주년 기념 동창의 날’ 행사에서 모은 동창들의 기금 중 일부로 2017년 1학기부터 식품영양학과 성적우수신입생에게 ‘식품영양학과 50주년 동창장학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이 전달식에는 이선혜(74) 동창, 최수주(75) 전 회장, 정조인 회장, 모교의 박윤정(96) 식품영양학과 학과장, 서선희(97) 교수가 참석하였다.



제3회 이화 경영인의 밤을 성황리에 개최한 경영학과



장학금을 전달한 식품영양학과 동창들

남가주(LA) 지회

회장 _ 장경해(피아노 75)

다채로운 행사로 연말 마무리

2016년 10월 8일(토)에 있었던 가을 일일관광 행사는 79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러졌다. 특히 차량 봉사를 해준 김진현(체육 49) 동창의 아들과 배순자(무용 68입) 동창 외에 여러 동창이 협조를 해준 덕분에 적은 예산으로 풍성하게 행사를 치를 수 있었다.

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는 24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이화인의 만찬’에서 남가주 동창 김희숙(약학 62) 목사가 식사 기도를 하였으며, 2부는 남가주의 한나리(체육 92) 동창이 사회를 맡았다. 텔런트쇼에서 남가주 지회는 댄스를 선보여 ‘아차상(애석상)’을 받았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서 멋진 댄스를 선보인 남가주 지회

12월 10일(토) 정기총회 및 송년파티가 Norwalk에 소재한 Doubletree Hotel에서 120여 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부는 안혜숙(간호 74) 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돼, 이수훈(화학 61) 목사의 기도, 지인혜(피아노 71) 동창의 반주로 교가 제창이 있었고 장경해 회장의 환영인사가 이어졌다. 함지윤(간호 96) 동창의 회계 보고에 이어, 동창 자녀 2명(So Yon Noh, Ji Sun Wu)과 동창 유학생 1명(Heejung Ju)에게 지회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이어 장경해 회장의 연임 인준 발표가 있었다. 한나리 동창의 사회로 진행된 2부에서는 남가주동창합창단의 크리스마스캐롤에 이어 김경실(커미부 65) 동창의 남편 김경우 씨의 테너 독창, 김광숙(동양 72), 김화진(사회과교육 72) 동창 외 5인의 호산나사물놀이패 연주가 있었다. 또한 양정남(간호 60), 성기순(섬예 69) 동창 두 팀의 볼룸댄스는 모든 이를 즐겁게 하였다.

한편 역대 회장과 이사장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양정남(간호 60, 12회 회장), 고은주(영문 61, 11회 회장), 김성자(교육 61, 9회 회장), 민경남(불문 61, 10회 회장), 이명은(기문 64, 15회 회장), 박화자(간호 66, 전 이사장), 하명숙(체육 66, 전 북미주지회연합회 회장), 이숙현(가정 67, 23회 회장), 김정순(간호 75, 28회 회장), 장경해

(30회 회장), 장계원(문정 76, 29회 회장) 등 모두 11명이 이번 파티에 참석하였다.

총회 뒤풀이 자리가 있었다. 큰 행사를 치른 임원들을 독려하며, 평가회의 자리를 겸했다.

뉴욕 지회

회장__박영숙(경영 86)

연례만찬으로 동창 대화합의 장 열어

2016년 9월 12일(월) 정기모임이 맨해튼에서 있었다. 연례만찬 준비와 휴스턴 총회 참여를 독려하는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김현우(서양 82) 동창의 남편 김용정(콜럼비아의대 척추 전문 교수) 박사에게 척추 건강에 관한 강의를 들었다.

10월 29일(토) 연례만찬이 플러싱에서 열려 이화 사위와 친지 등 130여 명이 참석하였다. 이날, 곽복향(약학 64) 장학위원과 유덕향(약학 71) 이사장이 심사숙고하여 선발한 학부 장학생 2명(Ye Jun Hahn, Juliet Kim)에게 각 2,000달러씩 장학금을 수여하였다. 한편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고, 모교에 관한 동영상 상영을 하였다.

뉴욕 지회에서는 휴스턴에서 열린 총회에 12명의 동창이 참석하였다. 12월 5일(월)에는 유덕향 이사장이 마련한 연례만찬과 북미주지회연합회



연례만찬에 참석한 뉴욕 지회 동창들

뉴질랜드 지회

회장__이보아(종음 85)

무더운 여름 문턱에 치른 연말모임

여름 문턱에 성미혜(법학 75) 동창의 집에서 연말 모임을 가졌다. 남편들도 함께한 이날 모임에서 동창들은 숯불 바비큐와 임원들이 마련한 음식으로 푸짐한 점심 식사를 한 뒤 제비뽑기로 선물을 나누어 가졌다. 이화의 이름으로 모인 칠순의 선배들과 사십 줄의 후배들이 서로 사랑을 나눈 연말 송년 모임이었다.



성미혜 동창의 집에 모인 뉴질랜드 지회 동창들

대구 지회

회장__최정숙(영문 81)

가을의 문턱에서 삶의 희망 꽂 피워

2016년 9월 23일(금) 경남 양산으로 가을 나들 이를 다녀왔다. 정교하고 화려한 통도사의 목조



양산 통도사로 나들이를 떠난 대구 지회

건물과 영축산의 능선이 장관이었다.

이어 양산의 핫플레이스인 복합 문화 공간 스페이스나무로 발길을 옮겨 정갈한 한정식으로 배를 채우고, 주위를 둘러보며 서로의 추억을 쌓았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기억은 살아가는 동안 힘이 되고 희망을 샘솟게 한다. 대구의 이화는 희망으로 늘 만개하길 기대해 본다.

멜버른 지회

회장 __ 박혜진(독문 97)

송년 모임과 새 임원진 선출

2016년 12월 7일(수) 시티의 한국관에서 송년회



송년 모임을 갖고 새 임원진을 선출한 멜버른 지회

를 가졌다. 이날 처음 참석한 조한주(영문 70) 동창과 박정현(화학 95)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다. 또한 박성혜(기독 95) 전임 회장에 이어 2017년을 이끌어갈 새 임원진을 선출하여, 회장에 박혜진 동창이, 총무에 신은미(사회 99) 동창이 선출이 되었다.

몬트리올 지회

회장 __ 김명원(수학 92)

2016년 송년의 밤

2016년 11월 27일(일) 노트르담 드 그라스에 위치한 일식집 향진에서 부부동반 모임으로 송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이번 송년회는 지난 5월 28일(토) 새롭게 지회장으로 선출된 김명원 동창이 첫 인사를 하는 자리이자, 8년간 수고해준 전임 회장 이채화(무용 76) 동창의 노고를 감사하는 자리였다. 총무는 문정아(불어교육 92) 동창이 새로 맡았다. 김명원 회장이 동창들의 근황과 향후 모임 계획에 대해 안내하고, 이어서 이채화 전임 회장의 기도로 식사를 시작했다. 오붓하게 식사를 마친 후 전임 회장에게 감사 선물을 증정하였다. 그



부부동반으로 송년 모임을 가진 몬트리올 지회

외에 올해 졸업 50주년을 맞은 이순길(화학 66) 동창에게 졸업 50주년 기념선물을, 박정자(화학 62) 동창에게는 졸업 55주년 기념선물을 증정했다. 전임 회장이 준비한 선물 추첨식을 끝으로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귀가길에 올랐다.

밴쿠버 지회

회장 __ 손귀순(문정 71)

추석 모임과 송년 모임

2016년 9월 24일(토) 로얄서울관에서 추석모임을 가졌다.

11월 27일(일) Vancouver Golf Club에서 부부동반으로 송년모임이 있었다. 강봉숙(국제사무 73) 동창이 사회를 보고, 부회장 최경숙(교육 73) 동창이 조국과 모교를 위해 기도한 후 식사를 하였다. 2부에서는 이장연(성악 85) 동창이 지도하는 K Voice 어린이합창단의 찬양, 이장연 동창의 독창, 박혜정(관현 82) 동창의 바이올린 독주가 이어졌으며, 넌센스 퀴즈와 행운권 추첨으로 상품들을 나누고, 모교 대외협력처에서 보내준 총동창회 수첩을 감사히 나누어 가졌다.



송년모임으로 한 해를 마무리한 밴쿠버 지회

홍겨운 노래와 춤으로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교가제창으로 모임을 마무리한 동창들은 설날 모임에 다시 만날 것을 기대하며 헤어졌다.

보스턴 지회

회장 __ 박순혜(국문 73)

송편을 빚으며 선후배 간의 정 나누어

9월의 어느 날, 렉싱톤의 백정희(간호 74) 동창집에서 모임을 가졌다. 접시마다 작품과 같은 요리가 나왔고, 백 동창의 남편까지 일찍 퇴근하여 바비큐 솜씨를 보여주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후배에게 지급할 장학금, 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가 신청과 장기자랑에 대한 문제를 의결 짓고, 특별활동으로 송편 만들기를 했다. 소녀가 된 마음으로 재잘거리며 송편을 예쁘게 빚기 위해 애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동창들은 앞으로 모임을 할 때마다 한 가지씩 다른 동창들의 장기를 배우기로 하고, 다음은 염색 전공을 한 김홍혜(가정 64) 이사장의 집에 모여 염색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로 하였다.



백정희 동창 집에서 모임을 가진 보스턴 지회 동창들

북가주(샌프란시스코) 지회

회장_곽정연(독문 76)

정기모임 개최와 총회 참석

2016년 9월 3일(토), 산타 클라라에 소재한 오가네서 40여 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다. 새로 나온 김영아(독문 93) 동창의 환영과 9월 생일을 맞이한 동창들의 축하도 겸하였다. 회계 감사인 박여순(사학 69)·최영자(가정 67) 동창의 2015년 4월부터 2016년 3월까지의 감사보고가 있었으며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2016년 10월 1일(토), 산 호세에 소재한 산장에서 30여 명의 동창들이 정기 모임을 가졌다. 10월 생일을 맞은 동창의 축하가 있었고 Joe Bondi 씨의 장례절차에 대한 강연과 김병오 공인법무사의 ‘유언 상속 리빙 Trust’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또한 김옥교(국문 60) 동창의 출판기념회가 10월 8일(토)에 있음을 광고하였다.

11월 5일(토), Newark에 소재한 니조캐슬에서 17명의 동창들이 모여 정기 모임을 가졌으며, 지회장을 비롯 16명의 동창들은 11월 3일(목)부터 6일(일)까지 휴스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다녀왔다. 북가주 지회는 이번 총회에서 <팥쥐가 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참석한 북가주 지회 동창들

가 막혀>를 앵콜 공연하였다.

시드니 지회

회장_이전희(가정 72)

연말 모임에서 새 회장단 선출

2016년의 11월 10일(목) Waterfront에 위치한 Oliveto Italian Restaurant에서 21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연말 파티가 열렸다.

이날은 지난 2년 동안 봉사한 김봉희(서양 74) 회장단의 마지막 모임인 동시에 차기 회장단 선출이 있었다. 새 회장단으로 회장에 이전희, 총무에 황귀연(생미 88), 회계에 배은미(교육 84) 동창이 선출되었다. 날씨도 좋고 아름다운 레스토랑에서 이루어진 연말 파티인지라 동창들이 매우 즐거워하였다.

장기숙(사회 64) 동창이 수술 후 처음으로 모임에 참석하였고, 한복희(사회과교육 63) 동창도 오랜만에 참석해 모두 수술 후 건강을 되찾은 것을 축하하였다.

태즈메이니아에 거주하는 윤세순(식영 72) 동창과 한국에서 작품 활동을 하는 최형순(서양 91)



아름다운 풍광의 레스토랑에서 연말 모임을 가진 시드니 지회

동창이 오랜만에 모임에 참석해 더욱 반가웠다.

시애틀 지회

회장__이혜현(문정 74)

클래식 음악과 함께한 모임

2016년 6월 25일(토) 박명호(정외 78) 동창 집에 23명의 동창들이 모였다. 박명호 동창은 남편 김재훈 박사와 함께 ‘클래식 음악에 대한 이해’라는 강연을 마련하였고, 참석한 동창들에게 여러 장르의 음악을 담은 CD를 선물로 나누어 주었다. 모두 즐겁고 유익한 자리였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팔순을 맞이한 서효기(사회과교육 59) 동창과 장숙렬(생물교육 60) 동창을 축하하였고, 동창회에서 제공한 푸짐한 음식과 박명호 동창이 준비한 각종 과일과 떡을 나누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가졌다.



박명호 동창의 집에서 학구적인 모임을 가진 시애틀 지회 동창들

애틀랜타 지회

회장__장명옥(영문 81)

지회 합창단, 총회에서 1등상 받아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탤런트쇼에서 1등상을 받은 애틀랜타 지회

‘서라벌’ 식당에서 32명의 동창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9월 모임을 열었다. 성정순(체육 49) 동창의 개회기도에 이어 조후자(의학 70) 동창이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준 어머니’에 대해 회고하였다. 김아자(의학 63) 이사장이 이사회 보고를 하였으며, 휴스턴에서 열릴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 참가자에게 호텔 숙박비 1,000달러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차희숙(체육 77) 골프부장이 10월 3일(월) North wood Golf Club에서 열릴 ‘이화여자대학교 총장배 골프토너먼트’ 참가신청을 받았다. 점심 식사에 이어 9월 생일을 맞은 동창(안세화·법학 63, 이혜선·피아노 64, 정제니·영문 64) 축하와 함께 오랜만에 참석한 안세화 동창을 환영하는 시간이 있었다.

10월 9일(일) ‘나루스시’에서 모임이 있었다. 이번 모임엔 모두 26명이 참석하였고,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대한 준비사항을 점검하였다.

11월에 열린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에 애틀랜타 지회에서는 모두 17명이 참가하였다. 탤런트쇼에서 애틀랜타 지회는 첫 순서로 〈Nella Fantasia〉와 〈꽃을 드려요〉 두 곡을 불렀는데 감사하게도 1등상을 받았다. 열심히 연습에 임해준 합창단원

들과 직장 다니는 중에도 수고해준 지휘자 이미애(성악 89), 반주자 윤미영(피아노 84) 동창에게 특별히 감사드린다.

휴스턴 총회에 참가한 동창들은 모교 창립 130주년 기념 캠페인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총 3,700달러를 이화국제재단에 보내기로 하였다. 힘을 모아준 동창들은 다음과 같다. 성정순, 김인자(영문 51입), 오은경(심리 54), 김아자, 장공근(기악 67), 장윤심(식영 70), 조후자, 김영례(심리 79), 김정희(약학 79), 장명옥(영문 81).

2016년 연말모임은 12월 11일(일) 이영임(섬예 86) 동창 집에서 열렸다.

워싱턴DC 지회

회장__김성혜(보교 88)

봉사 모임으로 따뜻한 연말 보내

2016년 10월 1일(토) 최유정(무용 96) 문화부장 집에서 새 동창 환영회를 가졌다. 이명지(영문 67) 이사장, 김성혜 회장과 6명의 임원진들은 2016년에 새롭게 지회에 나온 14명의 동창들을 따뜻하게 환영하고 이화의 정을 나누었다.



최유정 동창의 집에서 새 동창 환영회를 가진 워싱턴DC 지회

11월 14일(월) 최숙자(문정 69) 동창 집에서 Conerstones 단체의 무료 방과후교실 이용 학생들을 위한 Snack Packing이 있었다. 동창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부로 주스, 크래커, 프룻 스낵 등을 담은 100개의 Snack Pack을 만들었으며, DC지회 소속 Knitting 클럽에서 보내준 목도리와 동창들이 기부한 학용품을 Conerstones 단체의 Food Pantry에 전달하였다.

일본 지회

회장__고정희(장미 74)

이른 송년 모임 개최해

2016년 도쿄의 가로수 길이 은행잎으로 노랗게 물들던 11월 12일(토) 송년 모임을 가졌다. 90세의 김정숙(체육 50) 동창과 정정자(커미부 65) 동창이 모임 격려사를 하였고, 고정희 회장의 활동 보고가 있었다.

식전 기도로 동창 모두는 한마음이 되어서 이화인의 화합을 간절히 기도하였다. 식사 후에는 제비뽑기로 송년 선물을 나누며 화기애애하고 정다운 시간을 보냈다.



송년모임을 맞아 한자리에 모인 일본 지회

자카르타 지회

회장_ 이은수(동양 78)

좀더 많은 동창 활동을 기대하며

2016년 9월 13일(화), 스나얀 플라자 '챤다라'에서 9명의 동창이 조촐하게 모였다. 추석이 있는 주간이라 많은 동창이 참석하지 못해 아쉬웠다. 한편 2017년부터는 부득이하게 회비를 70만 루피 아로 올리기로 하였다. 6월과 9월에는 이은수 동창의 차남 결혼식과 피로연이 Java Palace Hotel에서 있었다. 한편 김선주(섬예 07) 동창이 한국으로 귀국하게 되어 모두 아쉬워하였다.



추석이 있는 주간에 모임을 가진 자카르타 지회

청주 지회

회장_ 윤미숙(물리 83)

가을 야유회 다녀와

2016년 10월 13일(목)에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과 파주 헤이리, 프로방스 마을로 즐거운 가을 야유회를 다녀왔다. 이른 아침 관광버스에 탑승하여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한적함과 여유, 멋진 조각들을 한껏 즐기고 파주 헤이리로 이동하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다녀온 청주 지회 동창들

였다. 점심식사 후에는 헤이리의 골목골목을 삼삼오오 모여 탐방하는 자유 시간을 가졌다.

토론토 지회

회장_ 홍석미(영문 79)

연말파티로 한 해를 마무리

2016년 9월 15일(목) 햅불회 모임을 Port Perry로 이사간 오예정(법학 86) 동창 집에서 가졌다. 조경자(영문 63) 목사의 말씀으로 예배를 드리고, 윤지숙(중문 92) 동창에게 교통사고 관련 보험법에 대한 안내를 들었다. 이날 모임에는 토론토를 방문 중인 조성환 전 모교 교수가 함께하였다. 한국에서 활동하는 박덕주(교공 69) 동창이 서울에서 작품을 공수해 와서 10월 5일(수)부터 7일(금)까지 현대한글서예전시회를 열었다. 10월 11일(화)에는 Don River Valley에 위치한 Evergreen Brick Works로 Field Trip을 다녀 왔다.

11월 18일(금)에는 이기선(생명 58) 동창이 제34회 한인상 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이 동창은 온타리오 주 한인간호사협회 발족을 주도하는 등 동



성대한 연말파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토론토 지회

포 사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다. 또한 심순옥(영교 68) 동창의 남편도 캐나다와 한인사회 발전에 대한 공로로 상을 받았다. 11월 20일(일)에는 174명의 동창과 가족이 모이는 성대한 연말파티로 즐거운 만남의 시간을 보냈다.

파리 지회

회장_홍성부(생미 84)

선배들을 위한 추석 모임 개최

2016년 9월 30일(금) 홍성부 회장의 집에서 70년대 이상 학번 대선배들을 위한 추석맞이 모임을 개최하였다.



대선배들을 위한 추석맞이 모임을 개최한 파리 지회

타지에서도 고향에서와 같은 풍성한 한가위를 보내기 위해 마련된 이날 모임에는 이충석(심리 56), 민경화(국문 62), 이병주(불문 62), 송미영(불문 76), 함미연(불문 81), 신현숙(동양 81) 동창 및 동창회 임원 홍성부, 한연미(정외 90·홍보), 박현선(의직 91·부회장), 박세연(서양 94·총무), 박지은(가관 96·서기), 함화진(컴공 02·회계) 동창이 참여하여 식사 및 다과를 나누며 한국의 명절을 축하하였다.

필라델피아 지회

회장_남광희(의직 73)

유익한 강연과 함께하는 모임

2016년 9월 12일(월) 두부 레스토랑에서 15명의 동창이 모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남광선(식영 76) 동창의 남편 정형외과 전문의 문대옥 박사가 ‘손과 손목 건강’에 대해 강의하였다. 매년 유익한 강연과 식사 대접을 해주는 남광선 동창 부부에게 감사드린다. 10월 모임에는, 오종숙재 정보협의 오종숙 씨에게 ‘Women and Finance’라는 제목의 특강을 들었다. 실생활에 도움이 많이



문대옥 박사와 필라델피아 지회 동창들

되는 강의였다.

11월은 친교와 자유로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으며, 2017년 지회장으로 남광희(의직 73) 동창을 만장일치로 선출하였다. 12월에는 라이라이 레스토랑에서 망년회 모임을 가졌다.

홍콩 지회

회장_정도경(사복 81)

하반기 모임에서 연회비 모금

홍콩 지회는 5년 동안 총무로 최선을 다해준 한정화(섬예 94) 동창이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어 한혜린(법학 09) 동창을 신임 총무로 선출하였다. 한혜린 동창은 홍콩에서 국제변호사로 활약하고 있다.

2016년 11월 10일(목) 아메리칸클럽에서 2016년 하반기 동창모임을 가지고, 총동창회에 보낼 연회비(개인당 200홍콩달러)를 모임에 참석한 동창들로부터 거두었다. 이날 정도경 회장은 바쁜 와중에도 모임에 참석해준 동창들에게 감사하며 오찬 비용을 지불하였다.



점심식사 후 커피를 마시며 친목을 도모하고 있는 홍콩 지회

휴스턴 지회

회장_정미선(수교 85)

오랜 준비로 성공적인 총회 개최

2016년 내내 휴스턴 지회는 총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다. 휴스턴 지회 동창들은 총회 만찬에서 선보일 텔런트 쇼를 위해 여러 달에 걸쳐 Texas Line Dance를 연습했고, 이화 사위들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합창 연습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었다. 그 외에도 총회, 책자 발간, 기념품 제작, 관광지 답사 등 여러 가지 준비 작업을 위해 동창들과 임원들이 수시로 모여 회의를 하였다. 또한 총회 기간 중 마련된 건강 세미나, 요가 및 스트레칭, 코사지 만들기 등 강의를 흔쾌히 맡아준 분들께 감사한다.

이번 총회는 준비 단계부터 11월 6일(일)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임원들의 열정과 동창들의 아낌없는 협조가 빛을 발했다. 또한 휴스턴과 북미주 각처에서 온 250명이 넘는 동창들이 ‘세계 최고의 이화! 혁신을 이루어 간다’는 자부심과 함께 이화인의 사랑을 나누는 잊지 못할 추억의 시간이 되었다.



북미주지회연합회 총회를 개최한 휴스턴 지회

30주년을 맞이한 이대동창문인회

이대동창문인회(회장 조한숙, 국문 69)는 2016년 11월 25일(금) 창립 30주년 기념행사와 제19회 ‘이화문학상’ 시상식을 개최하였다. 창립 당시 이봉순(문과 40) 초대 회장을 비롯하여 강성희(문과 47), 최귀동(영문 48), 김양식(영문 54) 동창의 열정으로 1986년 발족한 이대동창문인회는 현재는 300여 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이제는 고인 이 된 모윤숙(문과 31), 전숙희(문과 38), 조경희(문과 39), 강신재(가사 46) 동창 등 든든한 선배들을 자랑하는 이대동창문인회는 해마다 여러 장르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의 작품을 심사하여 이화문학상을 선정한다. 2016년 이화문학상 수상작은 강추자(국문 66) 동창의 『도리화가』이다.



이대동창문인회

구난서(영문 57) 동창

구난서(마르다) 동창의 신앙 여정을 담은 『마르다의 여정: 하나님과 생생한 동행』(유니게)이 출간되었다. 필자인 그레이스 모리스 선교사는 구 동창의 선교 열정에 감명받아 전기 집필의 뜻을 가졌다고 한다.



구난서 동창

김기순(기악 66) 동창

김기순 동창이 단장 겸 상임지휘자로 있는 이화챔버오케스트라가 2016년 10월 18일(화) 영산 아트홀에서 제17회 정기연주회를 하였다. 이화챔버오케스트라는 모교 음악대학 동창들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김기순 동창

홍종순(간호 59) 동창

간호대학 1회 졸업생인 홍종순 동창이 이화국제재단에 ‘간호대학 장학기금’을 설립하였다. 홍 동창은 그동안 간호대 동창들이 많은 후원을 해왔지만, 좀 더 ‘영구적이고 지속적으로’ 간호대학 후배들을 돋기 위하여 기금을 설립했다고 밝혔다.

이정자(조소 66) 동창

2016년 9월 19일(월)부터 10월 9일(일)까지 햅뷸트리니티갤러리에서 개인전 ‘1977~2016’을 개최하였다.



이정자 동창

유중근(영문 67) 동창

2016년 10월 6일(목)에 횃불선교 센터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았다.



유중근 동창

이민자(커미부 67) 동창

이민자 동창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강화나들길에서 2016년 10월 30일(일) ‘제2회 민통선 평화 걷기–더 좋은 나라 통일의 길목에서’ 행사를 개최하였다.

김희경(생미 68) 동창

2016년 10월 12일(수)부터 18일(화)까지 갤러리 H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오순희(생미 68) 동창

오순희 동창이 관장으로 있는 박을복자수박물관이 개관 15주년을 맞이하여 ‘섬유미술 10인전’을 열었다.

이영희(생미 68) 동창

2016년 10월 18일(화)부터 31일(월)까지 여니갤러리에서 ‘그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눈부심’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김정수(무용 70) 동창

단국대학교 명예교수 김정수 동창은 2016년 9월 20일(화)부터 25일(일)까지 아르코 예술 대극장에서 진행된 한국발레협회 주최 ‘K-Ballet World’ 공연에 출연하였다. 이번 공연은 60~70대의 원로 무용가들이 한 무대에 오른 기념비적인 무대였다. 또한 김 동창은 12월 10일(토) 한국



김정수 동창

발레협회 ‘특별공로상’을 수상하였다.

최민숙(독문 71) 동창

모교 명예교수 최민숙 동창은 2016년 11월 26일(토) 한국외국어대에서 개최된 한국괴테학회 2016년 겨울철학술대회에서 기조강연을 했다.



최민숙 동창

이정주(서양 72) 동창

2016년 12월 6일(화)부터 12일(월)까지 광주아트타운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장연순(생미 73) 동창

2016년 9월 22일(금)부터 10월 22일(토)까지 갤러리 LVS에서 ‘늘어난 시간 Ⅲ–시간·공간·인간’이라는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황지선(조소 74)·이선희(조소 81)·지연신(조소 89)·장선아(조소 90)·김연(조소 91)·김양선(조소 94)·안경하(조소 99)·김순임(조소 02) 동창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인사동 관훈갤러리에서 열린 광장조각회에 참여하였다.

오숙환(동양 75) 동창

2016년 9월 22일(금)부터 10월 3일(월)까지 Gallry Suppoment에서 초대전 ‘자연의 파장’ 전을 개최하였고, 10월 27일(목)부터 31일(월)까지 Mongolia International University에서 ‘The Cross’ 전을 개최하였다.



오숙환 동창

진정숙(작곡 75)·박정희(작곡 77)·한혜리(작곡 79)·심옥식(작곡 82)·이남림(작곡 82)·홍사

은(대학원 83)·원현미(작곡 88)·박유선(작곡 90)·이수정(작곡 90)·임경신(작곡 92)·심현아(작곡 93)·정주희(작곡 93입) 동창

2016년 10월 22일(토) 5시 안동교회에서 작곡동인 델로스의 ‘델로스와 함께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통해 작품 발표를 하였다.



작곡동인 델로스

신연숙(커미부 76) 동창

신연숙 동창이 서울아리랑페스티벌을 총괄하는 집행위원장으로, 2016년 10월 14일(금)부터 16일(일)까지 2016 서울아리랑페스티벌 ‘청춘아리랑’을 기획 및 진행하였다.



신연숙 동창

김효정(서양 77) 동창

2016년 9월 21일(수)부터 10월 1일(토)까지 장은선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장영란 동창

장영란(섬예 77) 동창

2016년 9월 1일(목)부터 9월 5일(월)까지 수원 시립아이파크미술관에서 ‘KOREA BOJAGI FORUM’ 초대전을 하였으며, 같은 기간 동안 수원시 전통체험관에서 방한한 세계섬유작가들을 위한 한국 전통자수 특별 개인 초대전을 가졌다.

다. 또한 중국 심천시에서 개최된 제9회 ‘로잔 국제섬유비엔날레전’에서 국제심사위원으로 위촉되어 심사 및 초대전을 하였다. 전시는 중국 Shenzhen University Art Museum과 Shenzhen Guan Shanyue Art Museum에서 9월 10일(토) 오픈하여 9월 26일(월)까지 전시되었다

박현옥(의직 78) 동창

2016년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인사동 가나인사아트센터에서 ‘무한화서’를 주제로 개인전을 열었다.



박현옥 동창

이상인(작곡 78)·이남림(82) 동창

2016년 11월 1일(화) 7시 30분 서울 한남동 일신홀에서 이상인, 이남림 동창이 신(新)음악회 제38회 정기연주회를 통해 작품 발표를 하였다.

이은수(동양 78)·김선주(섬예 07) 동창

2016년 10월 20일(목)부터 25일(화)까지 자카르타 Korean Cultural Center에서 열린 ‘인도네시아한인미협전’에 참여하였다.



이은수 동창



김선주 동창

조은미(무용 78)·조양희(무용 96)·마승연(무용 03)·어수정(무용 05)·유서영(무용 09) 동창

조은미 동창이 예술감독으로 있는 현대무용단- 팀이 2016년 10월 29일(토) 서강대 메리홀에서 ‘젊은 무용수’



조은미 동창



조양희 동창

젊은 안무가' 공연을 가졌다. 이 공연에서 조양희, 마승연, 어수정, 유서영 동창의 안무 작품이 공연되었다.

김정희(의직 80) 동창

요하넥스 부사장 김정희 동창이 2016년 9월 23일(금)부터 25일(일)까지 서울 종로 한중연아트센터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정희 동창

홍영미(의학 80) 동창

이대목동병원 소아청소년과에 재직 중인 홍영미 동창이 2016년 11월 10일(목) 개최된 대한소아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한국심장재단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홍영미 동창

도현심(식영 81)·정순둘(사복 89) 동창

도현심 동창의 ‘아동가족연구소’와 정순둘 동창의 ‘연령통합고령사회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한국사회과학연구지원사업(SSK) 3단계 대형과제에 최종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업단은 4년간 총 18억 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된다.



도현심 동창

정순둘 동창

강애란(서양 83) 동창

2016년 10월 14일(금)부터 11월 27일(일)까지 대학로 아르코미술관에서 ‘중진작가 시리즈’ 첫 번째 초대전으로 ‘자기만의 방’ 전을 개최하였다.



강애란 동창

김미옥(서양 84) 동창

2016년 10월 11일(화)부터 30일(일)까지 횃불트리니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민혜경(도예 84) 동창

2016년 10월 21일(금)부터 27일(목)까지 당진 문예의 전당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고, 현대적인 기법으로 재해석한 다양한 청자 작품을 선보였다.



민혜경 동창

김주연(특교 85) 동창

2016년 11월 1일(화),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서호주간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센터는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확장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김주연 동창

김현희(서양 86) 동창

2016년 11월 1일(화)부터 20일(일)까지 횃불트리니티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윤경(서양 86) 동창

2016년 11월 1일(화)부터 12월 30일(금)까지 아트월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기유경(동양 88) 동창

기유경 동창의 ‘Thanks Giving-형태의 삶’ 전이 2016년 9월 19일(월)부터 27일(화)까지 갤러리한옥에서 열렸다.

윤선흥(동양 88) 동창

2016년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가나아트스페이스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김수지(동양 89) 동창

2016년 9월 28일(수)부터 10월 4일(화)까지는 갤러리M에서 ‘잠수’ 전을 개최하였다.

김영지(서양 89) 동창

2016년 11월 30일(수)부터 12월 20일(화)까지 Able Fine Art NY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가나(서양 89) 동창

2016년 10월 5일(수)부터 11일(화)까지 31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인경(동양 89) 동창

2016년 10월 5일(수)부터 11월 4일(금)까지 청주 예심갤러리에서 ‘일상의 축복–요나 이야기’ 전을 열었다.

지연신(조소 89) 동창

2016년 11월 11일(금) 24일(목)까지 예술공간 봄에서 개인전 ‘여행의 기억’을 개최하였다.

고윤숙(서양 91) 동창

2016년 10월 6일(목)부터 15일(토)까지 갤러리한옥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박형주(서양 91) 동창

2016년 10월 11일(화)부터 20일(목)까지 갤러리 담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오경아(서양 91) 동창

2016년 12월 7일(수)부터 20일(화)까지 레쓰빠스 71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김경원(동양 92) 동창

2016년 10월 26일(목)부터 11월 1일(화)까지 갤러

리1898에서 ‘연생’이라는 제목으로 개인전을 가졌다.

손정은(조소 92) 동창

2016년 9월 7일(수)부터 25일(일)까지 갤러리 가회동60에서 개인전 ‘POSTLUDE’를 개최하였다.

이보름(동양 92) 동창

2016년 10월 26일(수)부터 11월 1일(화)까지 ‘가장 멀리 있는 나’ 전을 갤러리1898에서 열었다.

이상형(동양 92) 동창

‘낯설음이 가장 익숙한’이라는 제목으로 2016년 10월 26일(수)부터 31일(월)까지 갤러리1898에서 개인전을 열었다.

이희준(약학 92) 동창

2016년 10월 30일(일)부터 2017년 1월 15일(일)까지 충무아트센터 소극장 블루에서 창작 뮤지컬 <아폴로니아>를 무대에 올렸다.



이희준 동창

정소연(서양 92) 동창

2016년 11월 24일(목)부터 12월 14일(수)까지 서울 송현동 이화익갤러리에서 개인전 ‘어떤 풍경’ 전을 열었다.

김수정(과교 93) 동창

배리어프리영화위원회 대표 김수정 동창이 2016년 11월 10일(목)부터 13일(일)까지 한국영상자료원 시네마테크에서 제6회 서울배리어프리영화제를 열었다. 배리어프리는 장애물을 최소화한다는 뜻으로, 영화의 화면을 음성으로 설



김수정 동창

명해주거나, 대사와 모든 소리 정보를 한글 자막으로 넣어 시각·청각 장애인을 위한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말한다.

김혜정(도예 93) 동창

모교 교수로 재직 중인 김혜정 동창이 ‘김혜정의 그릇 : Carpel’이라는 타이틀로 2016년 9월 2일(금)부터 11일(일)까지 북촌에 있는 Gallery Ah-won에서 개인전을 개최했다.



김혜정 동창

구미경(동양 94) 동창

2016년 11월 1일(화)부터 11일(금)까지 예송미술관에서 ‘Crack 자연을 깊은 선’ 전을 개최하였다.

박소정(화학 94) 동창

모교 교수 박소정 동창과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 이대연·존 크로커 교수 등 한·미 공동연구팀이 인공 DNA의 염기서열 정보 등을 이용해 연성재질 미세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핵심기술을 최초로 개발하였다. 이 연구성과는 나노과학 분야 세계 최고 권위의 학술지인 《나노테크놀로지》 2016년 10월 24일(월)자에 게재되었다.



박소정 동창

김건희(동양 95) 동창

‘Wonderland 훌러가다’라는 주제로 인사아트센터에서 2016년 9월 7일(수)부터 13일(화)까지 전시회를 열었다.

김정아(국문 96) 동창

이노션월드와이드 제작센터장 김정아 동창이 한국인으로서는 유일하게 ‘캠페인브리프’가 선정

한 ‘올해 가장 주목받는 아시아광고제작자 톱 20’에 이름을 올렸다.

이상의(동양 96) 동창

‘무릉도원–여민해락 웃칠화’ 전이 2016년 10월 3일(월)부터 17일(월)까지 Gallery Bulil에서 열렸다.

정혜윤(동양 97) 동창

2016년 10월 8일(토)부터 13일(목)까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에서 열렸던 마니프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하였다.

윤영경(동양 99) 동창

제8회 개인전 ‘강산무진: 강산은 끝이 없다’ 전을 2016년 11월 23일(수)부터 29일(화)까지 갤러리 그림손에서 열었다.



윤영경 동창

이사라(의학 99) 동창

2016년 9월 23일(금)부터 24일(토)까지 열린 제102차 대한산부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최우수 구연상을 수상했다.



이사라 동창

윤정원(동양 01) 동창

2016년 9월 7일(수)부터 10월 26일(수)까지 한원 미술관에서 ‘불완전한 아름다움’ 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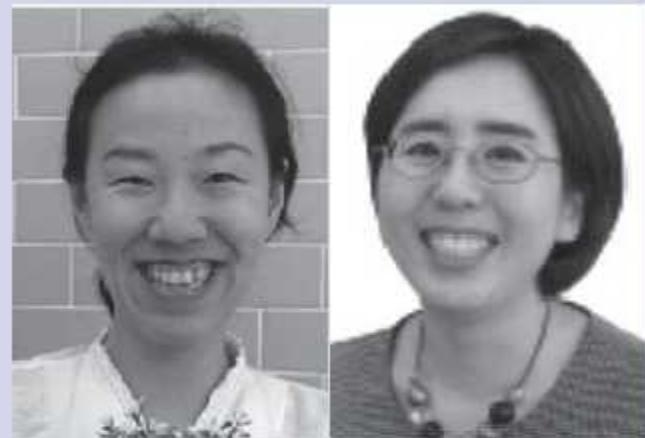
이민수(수학 01) 동창

2016년 9월 21일(수)부터 23일(금)까지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제 생물정보학 학술대회(InCoB) 2016’에서 최우수논문상을 수상했다.



이민수 동창

이소아(법학 01)·안현주(법학 03) 동창
이소아, 안현주 동창이 비영리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에서 활동하게 되었다. 이 동창은 서울의 NGO단체에서 상근변호사로 활동하였고, 안현주 동창은 외교통상부 재직 중 미국으로 건너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이소아 동창 안현주 동창

이오성(동양 02) 동창
2016년 11월 12일(토)부터 12월 1일(목)까지 한경갤러리에서 개인전 '우리들의 노래'를 개최하였다.

강소연(피아노 03) 동창
한국음악비평가협회 제정 제18회 오늘의 신인연주가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시상식은 2016년 12월 15일(목) 충무아트홀 콘벤션 센터에서 열렸다.



강소연 동창

김아영(도예 04)·박유정(도예 05) 동창
파주 헤이리 예술인 마을의 갤러리 아쉬에서 2016년 10월 16일(일)부터 11월 20일(일)까지 'Room No. 1159·동상이몽'이라는 주제로 전시회를 열었다.



김아영 동창 박유정 동창

김정향(동양 04) 동창
'수건 손 눈 숟가락-타니산견문록' 전이 2016년 11월 21일(월)부터 30일(수)까지 서울문화재단 후원으로 갤러리담에서 열렸다.

고형지(도예 09) 동창
2016년 11월 9일(수)부터 15일(화)까지 '창조주의 그릇장'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길 52가의 인큐베이터52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고형지 동창

오영아(대학원 09) 동창
2016년 8월 10일(수) '2016 한국 문학 번역·연구·출판지원 사업'의 일본어 부문 지원 대상자로 선정됐다. 황정은 작가의 『계속해보겠습니다』를 일본어로 번역하여, 원작에 대한 이해와 가독성이 모두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영아 동창

임지희(건반 10) 동창
2016년 9월 16일(금)부터 26(월)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프란츠슈미트(Franz Schmidt) 국제 오르간 콩쿠르'에서 1위 없는 2위를 수상했다. 6회를 맞이한 이번 콩쿠르는 젊은 오르가니스트를 배출하기 위해 2년에 한 번씩 열리고 있다.



임지희 동창

전경화(약학 10) 동창
2016년 10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서울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열린 '2016 대한약학회 창립 70주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전경화 동창이 '난치성 암인 삼중음성유방암에서 m-칼페인의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우수구두발표상을 수상했다.



전경화 동창

김현수(도예 11) 동창

2016년 11월 2일(수)부터 8일(화) 까지 ‘The Circle’이라는 주제로 이화여대길 52의 인큐베이터52에서 첫 번째 개인전을 열었다.



김현수 동창

로그램인증제에서 인증받았다. 이에 꾸룩새연구소는 우수 인증 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및 시상, 언론보도 및 홍보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다미 동창

조윤애(물리 11)·문한결(물리 15)·지정은(물리 15)·김자영(물리 16) 동창

2016년 10월 19일(수)부터 21일(금)까지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국물리학회 가을학술논문발표회’에서 우수발표상 및 우수논문발표상을 받았다. 포스터발표 부문에서 조윤애 동창이 최우수상을, 지정은 동창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문한결·김자영 동창의 연구가 구두발표 부문 우수논문발표상으로 각각 선정됐다.



조윤애 동창

문한결 동창

지정은 동창

김자영 동창

김유림(도예 12)·김찬미(도예 12) 동창

김유림, 김찬미 동창의 세라믹 핸드메이드 브랜드 studio M.I.M은 2016년 9월 6일(화)부터 10월 31일(월)까지 이화여대길 52가에 있는 인큐베이터52에서 팝업 스토어를 열었다.



김유림 동창

김찬미 동창

정다미(환경 12) 동창

정다미 동창이 운영하는 꾸룩새연구소(www.owl.or.kr)의 체험 프로그램 ‘수리부엉이는 무얼 먹고 살까?’가 환경부에서 주최하는 환경교육프

강혜미(산디 13) 동창

2016년 8월 26일(금)부터 31일(수)까지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제25회 IEEE 국제 로-맨 학술 대회 2016’에서 최우수포스터논문상을 수상하였다.



강혜미 동창

이승연(환경 15)·이아름(환경 15) 동창

2016년 10월 31일(월)부터 11월 2일(수)까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6 한국기상학회 가을학술 대회’에서 기상기술 분과에서 이승연 동창이, 대기물리 분과에서 이아름 동창이 우수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이승연 동창

이아름 동창

정다희(컴공심화 15)·박소연(컴공심화 16) 동창
정다희·박소연 동창의 연구팀의 논문 「사물 인터넷을 위한 디바이스 핑거프린트 기반 보안 구조 설계」가 ‘IEEE INFOCOM 2017’에 채택되어, 2017년 5월 1일(월)부터 4일(목)까지 미국 애틀랜타에서 열리는 ‘IEEE INFOCOM 2017’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본 연구팀은 2016년에도 선정된 바 있어 2년 연속 INFOCOM 논문을 발표하는 영예를 안았다.



정다희 동창

박소연 동창

동창이 펴낸 새 책

졸업연도 순서로 계재

우울증의 선물 강순경(영문 60)

강순경 지음 / 범우

- 『우울증의 선물』은 홍익대 영문과 교수를 지낸 강순경 동창의 세 번째 수필집이다. 강 동창은 이 책에서 고독과 외로움, 절망이 낳은 현대병, 우울증을 퇴치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무병장수를 위한 100세 시대 건강법을 소개하고 있다.



내가 만난 하느님 석성아(생명 65)

김성아 지음 / 지식공감

- 짧지만 아름다운 삶의 단편이 담겨 있는 『내가 만난 하느님』은 하나님께서 긴 세월 동안 보여 주신 사랑의 증거들을 담아낸 책이다. 석성아 동창은 지극히 평범한 한 여인의 칠십 평생을, 참으로 다정히 동행하시며 보여 주셨던 하나님의 기적과 대비하여 책을 서술하였으며, 수많은 신비로운 사실들을 글로 풀어내었다.



Blossom of the Golden Bell 장화인(심리 69)

장화인 지음 / WPF and STOCK PUBLISHERS

- 뉴저지여성사회봉사센터(AWCA) 전 회장, 이화국제재단 전 부이사장, 제15회 자랑스러운 이화인 상 수상자인 장화인 동창이 어머니 이야기를 담은 책 『개나리 꽂 다시 필 때』의 영문



판 『Blossom of the Golden Bell』을 출간하였다. 장 동창은 기독교 성서의 여성들과 유교적 환경의 한국 여성들의 현실과 경험이 자신의 어머니의 삶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어머니의 삶을 담담한 어조로 그리고 있다.

현대무용사상: 표현과 해체

김말복(무용 79)·이지선(무용 94)·이지원(무용 99)·나일화(무용 01)
김말복, 이지선, 이지원, 나일화 지음 /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20세기 무용이 당대의 시대사상과 공유하는 핵심적인 예술 가치와 이념들을 ‘표현과 해체’라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풀어내고 있는 무용학 연구서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무용사상과 무용예술, 그리고 컨템퍼러리 댄스의 현장을 면밀히 분석한 이 책을 통해서 당대를 대표하는 무용 작품에 대한 흥미로운 관점들을 접할 수 있다.



심층마음의 연구 한자경(철학 81)

한자경 지음 / 서광사

- 모교 교수이자 비교철학자인 한자경 동창이 자아와 세계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는 ‘심층마음’을 다각도로 조명한 책을 펴냈다. 칸트를 중심으로 한 서양 인식론, 심리철학, 고대 불교철학, 현대 한국의 불교이론 등을 비교 검토하며 심층마음의 경험 초월성이나 자각성에 대해 동양과 서양이 어떻게 서로 다른 사유를 전개해 왔는지 밝히고 있다.



리얼 관광 윤지민(국제학부 10)

윤지민 지음 / 이야기나무

- 리얼관광연구소 소장 윤지민 동창이 260일간 19개국을 돌며 만난 세계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을 펴냈다. 가이드, 관광청 직원 등의 경력을 지닌 윤 동창은 ‘관광은 산업’이라며 16개국 도시 관광청에 근무하는 실무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관광지를 운영하는 입장에서의 관광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후원이사회비 납부자 명단

2016. 1~ 2016.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중어중문학과	이윤상(86) 3,000,000	동양화과	한은주(79) 1,000,000	간호대학
류경아(86) 3,000,000	심리학과	박성희(86) 3,000,000	김화수(86) 3,000,000	간호학과
영어영문학과	조진옥(86) 3,000,000	서양화과	영어교육과	김진향(73) 1,000,000
최청규(65) 1,000,000	경제학과	천동옥(86) 3,000,000	박춘서(76) 1,000,000	정승은(86) 3,000,000
안미순(71) 1,000,000	유미경(86) 3,000,000	조소과	김윤상(86) 3,000,000	
김혜정(72) 1,000,000		손미란(86) 2,000,000	장연희(87) 1,000,000	약학대학
남덕자(73) 1,000,000	자연과학대학	장식미술과	외국어교육과	약학과
이주영(75) 1,000,000	수학과	배화숙(86) 2,000,000	전재성(불어전공 83) 1,000,000	김순영(62) 1,000,000
이정숙(77) 1,000,000	한석희(71) 1,000,000	도예과	사회과교육과	신성주(86) 3,000,000
방혜성(82) 1,000,000	조의주(86) 3,000,000	이재영(86) 2,000,000	이계희(56입) 1,000,000	제약학과
김유현(85) 1,000,000	물리학과		과학교육과	한숙영(79) 1,000,000
불어불문학과	김경자(68) 1,000,000	체육대학	유경희(83) 1,000,000	김채균(86) 3,000,000
배혜화(77) 1,000,000	남상택(74) 1,000,000	체육학과	손승희(86) 3,000,000	
채 럼(86) 3,000,000	김혜정(86) 3,000,000	이영란(76) 1,000,000	생활환경대학	가정관리학과
독어독문학과	정명애(86) 3,000,000	서영숙(86) 3,000,000	신경희(77) 1,000,000	백종화(86) 3,000,000
유동신(74) 2,000,000	생명과학과	무용과	박애영(80) 1,000,000	의류직물학과
이정화(74) 1,000,000	김성옥(72) 1,000,000	이미영(86) 3,000,000	김지희(86) 3,000,000	
김미선(86) 3,000,000	김정미(86) 3,000,000	사범대학	식품영양학과	김광옥(75) 1,000,000
기독교학과	공과대학	교육학과	고승덕(78) 1,000,000	최수주(75) 2,000,000
김미순(75) 1,000,000	컴퓨터공학과	심기종(65) 1,000,000	전신자(86) 3,000,000	이혜원(83) 1,000,000
정화영(86) 3,000,000	박상희(85) 1,000,000	윤순희(65) 1,000,000	정조인(83) 1,000,000	
철학과	양정진(85) 1,000,000	이숙원(86) 3,000,000	김우경(86) 3,000,000	
이영재(86) 3,000,000	조혜영(85) 1,000,000	유아교육과	대학원	
사학과	임미숙(86) 3,000,000	정주자(62) 1,100,000	채문경(74) 1,000,000	
강영선(86) 3,000,000		류지후(63) 500,000		
사회과학대학	음악대학	김귀연(71) 1,000,000	교육대학원	
정치외교학과	피아노과	김영주(71) 1,000,000	경영대학	
장은심(86) 3,000,000	김순담(86) 3,000,000	이상희(71) 1,000,000	경영학과	
금지현(87) 1,000,000	관현악과	이순례(71) 1,100,000	최명자(71) 1,000,000	
행정학과	양승주(86) 3,000,000	김향숙(85) 1,000,000	박영숙(74) 1,000,000	
안지민(86) 3,000,000	성악과	윤혜규(85) 1,000,000	임희소(86) 3,000,000	
문화정보학과	석정자(67) 1,000,000	김윤미(86) 3,000,000	국제사무학과	
조혜민(86) 3,000,000	이정은(86) 3,000,000	초등교육과	이지현(86) 3,000,000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작곡과	이현주(86) 3,000,000	의과대학	
조희수(86) 3,000,000	강영화(86) 3,000,000	교육공학과	의학과	
사회학과	종교음악과	김이주(71) 1,200,000	조종남(75) 1,000,000	
정호정(83) 1,000,000	정혜경(86) 3,000,000	이소영(86) 3,000,000	오혜숙(78) 1,000,000	
팽경인(86) 3,000,000		권미경(87) 1,000,000	최건무(86) 3,000,000	
사회복지학과	조형예술대학	특수교육과		
		최경식(75) 1,000,000		

평생회비 납부자 명단

2016. 1~ 2016.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김정애(76) 300,000	체육대학	김방희(85) 500,000	민명수(79) 500,000
국어국문학과		체육과		안소영(83) 500,000
박미해(64) 300,000		박경실(78) 300,000		유별내(02) 500,000
영어영문학과		법과대학		
정성희(69) 300,000		법학과		
김민경(16) 500,000		권성희(86) 500,000		생활환경대학
불어불문학과		정영심(00) 500,000		식품영양학과
김영혜(77) 300,000		유아교육과		박진자(71) 300,000
배혜화(77) 300,000		임형란(71) 300,000		김광옥(75) 300,000
독어독문학과		교육공학과		
임병희(74) 300,000		김준희(67) 300,000		국제학부
사회과학대학		영어교육과		국제학과
문화정보학과		안경숙(78) 300,000		최수안(06) 500,000
홍승진(65) 300,000		사회과교육과		
심리학과		민태희(70) 300,000		학과·연도 미상
최승현(68) 300,000		송선희(78) 300,000		이영애 300,000

연회비 납부자 명단

2016. 1~ 2016. 12(과·졸업연도 순)

인문과학대학	이혜숙(66)	중어중문학과	최화영(60)	고경원(71)	윤은용(96)	이중희(64)
국어국문학과	정준선(66)	안영호(85)	김옥선(61)	김수연(71)	최지연(96)	이한복(64)
전상애(56)	정준선(66)	이한나(08)	이행자(62)	한수미(72)	홍경아(97)	정기란(64)
허미자(57)	정순자(67)	김현정(14)	이행자(62)	한수빈(72)	오승필(00)	정기방(64)
김수희(58)	임완숙(68)	서예지	김명애(63)	오은주(74)	안효진(09)	조광자(64)
김영학(58)	정순자(68)		김정매(63)	이명숙(74)	이지은(09)	조행자(64)
김영학(58)	신언임(69)	영어영문학과	문영혜(63)	백혜련(75)	유수림(15)	정영자(65)
배동자(58)	유원화(69)	윤정옥(49)	박봉숙(63)	김희자(76)	정윤미(16)	성명숙(66)
임인진(58)	이명숙(69)	김영정(50)	박인자(63)	김미량(77)	김영순	이초혜(66)
김봉옥(59)	이명숙A(69)	류수인(50)	엄윤성(63)	이정숙(77)		엄선경(67)
한정숙(59)	김용희(72)	김순자(55)	유명자(63)	이해남(79)	불어불문학과	이경혜(67)
변도화(60)	서경자(73)	김승숙(55)	윤정혜(65)	김종유(80)	불명(62)	이한순(67)
송희성(60)	윤서현(75)	백형진(55)	정복영(65)	김향(80)	권남규(64)	전성자(67)
남을우(61)	전신애(75)	천영애(55)	정혜주(65)	이승희(80)	기범진(64)	홍미자(68)
윤숙자(63)	한순미(75)	김형식(56)	최계자(65)	최경희(81)	김송자(64)	한수옥(69)
이춘지(63)	백영자(76)	이인주(56)	홍정자(65)	양선주(82)	김송자(64)	민혜경(71)
유해일(64)	김청자(81)	곽경수(57)	정홍자(67)	이금희(82)	김홍자(64)	오인순(72)
김길자(65)	지선영(84)	김춘삼(57)	이유경(68)	이현애(82)	배은정(64)	이은정(72)
안정환(65)	진혜원(94)	전은경(59)	이인숙(68)	임순희(82)	성종순(64)	장혜경(73)
윤수영(65)	최은경(00)	남윤선(60)	김순희(70)	박경애(83)	신경자(64)	정광자(73)
이수자(65)	이현경(02)	박재옥(60)	오경심(70)	김미현(86)	윤용범(64)	신덕영(75)
신효재(66)	이수자	박재옥(60)	이정희(70)	이승은(94)	윤인진(64)	김보경(81)

김보경(81)	신경순(79)	강유정(91)	심리학과	한미경(88)	정보통신학과	석정자(67)
김태경(81)	정유심(81)	정혜영(04)	박경숙(57)	박 민(10)	왕아자(67)	
불 명(81)	백옥경(85)	이송희(16)	백남희(59)	화학과	왕아자(67)	
김이숙(87)	이영희(88)	곽지영	김태련(60)	강영옥(60)	전자공학과	조현주(68)
김수정(01)	박소정(14)	조혜선	김태련(60)	김정남(60)	강태경(18)	원성희(71)
이윤하(14)			기오성(61)	김종은(60)		원성희(71)
독어독문학과		사회과학대학	커뮤니케이션	오봉림(61)	환경·식품공학	원성희(71)
민용자(67)	김경숙(56)	정치외교학과	미디어학부	유남숙(62)	신성혜(98)	이영자(73)
오영란(67)	오명령(57)		조선희(66)	임혜영(64)	김효진(15)	천인숙(82)
최옥주(67)	최명숙(57)		이정민(67)	차정자(65)	김혜자(67)	김 연(01)
이숙경(68)	윤혜자(60)		김명자(68)	박순자(66)	양수경(67)	건축학과
이금숙(69)	구혜정(61)		김미령(69)	계명의(67)	위경옥(68)	장미현(00)
이금숙(69)	최금자(66)		연일선(75)	김정애(76)	이인희(70)	작곡과
유동신(74)	전정자(67)		주연아(76)	조상옥(76)	안소영(73)	김옥자(67)
이정화(74)	우행자(69)		조미경(79)	한상은(84)	김혜영(83)	임 진(72)
이 숙(88)	김영숙(70)		주보경(90)	한정운(84)	이나경(16)	김시애(75)
손미경(95)	김영희(70)		송지은(01)	주영아(85)	황북기(83)	
박종재(06)	백영옥(70)	사회학과		김선영(09)	음악대학	이주희(75)
	서염미(70)		김민재(16)	정송희(85)	음악과	남주희(84)
기독교학과		윤연주(62)		정명애(86)	문병주(39)	
김영화(65)	서정희(70)		경제학과	전온지(10)	조영숙(57)	종교음악과
김봉희(66)	이양준(70)		장의순(62)	정혜선	주영희(57)	양수화(71)
신혜정(66)	이연표(70)		이안자(64)	임진영(94)		김명수(75)
이정자(66)	이혜련(70)		김은경(65)	임지은(09)	생명과학과	최은희(81)
이혜재(66)	조백련(70)		최용소(65)	정연주(12)	기악과	윤연경(49)
박명옥(69)	하정희(70)		김덕신(66)	김연수(16)	윤연경(49)	조현정(85)
장수자(69)	남성희(74)		정행자(66)	자연과학대학	최순경(60)	장정화(86)
유미은(70)	이선규(74)		표경희(66)	수학과	최영희(60)	한정원(87)
장수자(70)	최종혜(76)		이효원(69)	윤연상(62)	류 우(60)	이인순(63)
김미순(75)	황유정(81)		최진선(70)	박상영(68)	주경순(61)	서은영(91)
유승희(82)	금주현(84)		김난숙(74)	김경애(72)	최순경(60)	김규라(93)
조정자(04)	이주영(94)		문명재(77)	이숙자(73)	정은자(61)	김축복(94)
	이은별(09)		오숙영(77)	불 명(79)	장관음(63)	
철학과			화성희(81)	한재욱(79)	이혜숙(67)	나효선(70)
엄소연(83)	왕수안(12)		강현주(95)	나세리(84)	최순자(67)	윤묘섭(83)
이소민(96)	윤흥선(14)		최경세(07)	한진영(93)	김양숙	곽은아(85)
불 명(99)	행정학과		이연주(16)	송 은(98)	윤영숙(68)	류정연(95)
민 정(00)	이유빈(15)			박나영(08)	피아노과	김희정(03)
이인아(00)	김선우(16)			유하나(08)	윤영명(74)	
허지선(16)	김양희			최윤정(12)	조애현(74)	이혜영(83)
	정희정					신주희
사학과				이영기(66)	통계학과	
손경수(60)	문화정보학과			최재명(66)	김수진(11)	
장원순(61)	황의자(67)			송유정(94)	김지윤(12)	
정민자(61)	박영숙(68)			우주영(97)	전희진(15)	조형예술대학
김학자(62)	백봉희(70)			고순자(69)	조예림(15)	미술·회화과
남상훈(62)	손귀순(71)			유기희(76)	공과대학	주의순(60)
서정임(68)	손귀순(71)			민선미(77)	물리학과	이효범(61)
오옥환(68)	손귀순(71)			불 명(61)	컴퓨터공학과	김덕자(67)
김세옥(71)	이주식(72)			정경숙(63)	강성실(86)	이선희(67)
민병서(71)	정연경(85)			김경자(68)	황정인(90)	하나영(68)
정현주(76)	박혜선(89)			신희주(97)	김순옥(74)	김자영(03)
				정유선(02)	양승희(12)	동양화과
				남상택(74)	박여울(14)	박인숙(78)
				김지현(88)	성악과	곽은숙(86)
					이풍자(63)	양재림(16)

서양화과	박유나(81)	오춘란(61)	장윤정(71)	진정자(76)	한태화(68)	차명희(66)
	안희정(85)	유수현(61)	전순희(71)	이영옥(78)	김인원(75)	한지숙(67)
최구자(65)	남연숙(86)	장경희(61)	조한수(71)	윤혜화(80)	송영희(77)	박현순(69)
	이보람(02)	박덕순(63)	채혜숙(71)	이현정B(94)	임한나(78)	유미선(69)
곽연(67)	구한울(15)	박덕순(63)	최명희(71)	서현아(05)	전혜경(80)	구정숙(70)
		백영자(63)	문경숙(74)	정예성(16)	전혜경(80)	윤혜숙(70)
이정주(72)		이정옥(63)	정해남(75)	김경화	변영희(81)	최양숙(70)
		최기자(63)	권용은(81)		김영숙(83)	박관순(72)
김효정(77)	체육대학	구순희(65)	연동숙(81)	외국어교육과	선해영(83)	조근배(77)
	체육학과	구순희(65)	이경미(81)	계기원(69)	금주현(84)	권순교(85)
차명임(82)	조성환(49)	구순희(65)	이정숙(81)	이혜완(69)	전희성(93)	박정호(86)
	김혜자(66)	구순희(65)	임산희(81)	강현주B(88)	박균하(94)	방순명(86)
조소과	전성자(67)	구순희(65)	임숙재(81)	김선흥(96)	문영주(98)	안혜정(86)
	이정자(68)	김광자(65)	정정인(81)		이창희(98)	이병희(86)
심인자(74)	불명(69)	김수홍(65)	송은미(85)	사회과교육과	박현경	이영선(86)
		심기종(65)	장태옥(87)	김형경(56)	송현주	정복자(86)
황명순(74)	문규순(70)	오금희(65)	방은정(91)	박정복(57)		조동숙(86)
		윤남숙(72)	장문정(94)	이영희(58)	수학교육과	공지영(94)
서옥천(81)		김신지(68)	강수지(12)	서금숙(59)	문봉선(76)	박현주(99)
		박영자(68)	박희경	최용혁(60)	김정열(80)	이민주(00)
오순영(64)	이윤숙(94)	박정수(68)		이계희(56입)	이정옥(80)	김진영(04)
		박혜정(08)	초등교육과	이선희(61)	정상희(06)	송은지(06)
김삼선(68)		윤성원(16)	신명자(68)	고정자(64)	최예진(15)	임송희(06)
		조정자(68)	심상옥(68)	이행자(65)	최인숙(62)	노숙영(09)
임정미(74)	김정자	이재옥(68)	정미자(65)	이경자(64)		김민재(12)
					보건교육과	정우정(12)
손경숙(80)		무용과	장예순(68)	박옥련(65)		
		김정수(70)	이추성(73)	조을순(75)	이주순(73)	경영대학
이귀숙(82)		조수형(70)	서성필(75)	안경희(84)	장은숙(74)	경영학과
		김화숙(71)	이화자(79)	정윤희(84)	조남옥(74)	
봉지희(85)		서차영(74)	김경수(81)	임효진(00)	김용순(77)	김옥순(69)
		김경주(80)	박영숙(81)	정우린(10)	박인순(77)	박영숙(74)
이향연(89)		서연경(95)	심성경(81)	이경아	윤여숙(69)	김영선(78)
			이정표(85)		김숙자(70)	임찬희(78)
생활미술과		사법대학	김성숙(99)	민태희(70)	고효선(79)	문수정(84)
		교육학과	이정애(13)	도영숙(68)	김숙자(82)	채경령(85)
김미자(70)		백인숙(50)	김금순	노정숙(74)	박지선(82)	김반지(91)
		불명(50)		손영신(77)	이연희(75)	두진경(93)
장효선(81)		정일례(50)	유아교육과	하경옥(77)	곽소은(83)	홍성희(94)
		정일례(50)	이은화(59)	박효숙(84)	김희선(81)	구성원(95)
이채근(84)		호재숙(49입)	유근희(61)	송민정(87)	박금옥(83)	신혜정B(01)
		사지숙(55)	최영란(61)	조승원(95)	김수현(03)	이유진(05)
윤자윤(85)		김금순(56)	정영자(68)	두민영(98)	황미숙(85)	하혜심(05)
		김애자(56)	권용선(71)	김지연(08)	손희정(88)	김경은(09)
이윤경(87)		김옥성(56)	김갑희(71)	최영주(93)	최슬기(12)	이승연(16)
		최영숙(56)	김귀연(71)	박지혜(94)	허민(14)	이미연
김아미(89)		임명숙(57)	김신재(71)	박(95)	국어교육과	최명희
		채정혜(89)	김영주(71)	유인숙(76)	노은언(05)	
박상미(90)		권유봉(58)	김영희(71)	한은주(79)	김경진(06)	법과대학
		권순임(91)	김은산(59)	박은혜(88)	김아람(06)	법학과
박구미(91)		김은진(59)	명은실(71)		오선주(60)	국제사무학과
		이연희(92)	김춘심(59)	영어교육과	정연순(60)	신경애(73)
유미나(96)		심재원(59)	안현숙(71)	김영숙(69)	이홍배(61)	김지은(79)
		이양순(59)	이기숙(71)	송숙자(66)	이홍배(61)	임은식(81)
도예과		이양순(59)	이상희(71)	최종숙(72)	유희숙(65)	임은식(81)
		한일순(59)	이순례(71)	지덕옥(75)	한옥희(67)	임은식(81)

김은주	윤혜정(50)	정예경(61)	황경수(88)	이경진(68)	신학대학원	양승경
	이항구(50)	허순영(61)	권진현(05)	강명희(69)		유승희
의과대학	김경원(51)	황한선(61)	이연금(05)		천미영(14)	윤연경
의학과	김순자(51)	김순영(62)	고성희(09)	가정관리학과		이경애
박명숙(53)	임희숙(51)	배형진(62)	서희원(10)	김현숙(73)	학과·년도 미상	이군옥
오세연(57)	전예실(51)	조수남(62)	정용희	서태선(75)		이기영
위종원(62)	최귀파(51)	김수자(63)		한상미(82)		이덕원
우복희(63)	한사숙(51)	차영화(63)	제약학과	김영주(03)		이미애
이현숙(64)	옥선옥(54)	홍경자(63)	이순이(71)	강민자		이미화
조성인(64)	배복희(55)	구신자(64)	장우현(74)	강혜숙		이순현
이규현(68)	오춘환(55)	김송윤(64)	황인덕(74)	의류직물학과	고영희	이영애
박숙자(72)	고영수(57)	김정경(64)	황인덕(74)	박윤정(55)	구자숙	이영애
최금자(74)	우종순(57)	백정자(64)	오용순(75)	장영희(67)	구정연	이영애
이경자(75)	이무경(57)	정태연(64)	강옥수(76)	유춘미(68)	권영현	이영옥
이덕용(75)	이영숙(57)	정진숙(65)	안혜영(76)	장경선(75)	권정아	이유진
이덕용(75)	정영주(57)	황영자(65)	서은영(79)	우미형(77)	권혜령	이정옥
조종남(75)	한영숙(57)	김명자(66)	조서희(95)	최인순(79)	김경숙	이주희
장애숙(76)	홍정옥(57)	김화수(66)	임은형(96)	유정희(83)	김선자	이혜원
장애숙(76)	김진숙(58)	이강희(66)	서은영(99)		김성림	이혜자
황임령(76)	문경희(58)	강원자(67)	김보미(05)	식품영양학과	김성숙	장한숙
김정혜(77)	구영순(59)	김영숙(67)		박일화(49)	김성희	전윤식
송선희(77)	문희(59)	김초원(68)		박종오(58)	김송자	정슬기
오혜숙(78)	문희(59)	박순(68)	생활환경대학	계명혜(63)	김애진	정연수
최신영(80)	민병옥(59)	박순례(68)	김임순(49)	구소원(69)	김영미	정연수
김현화(81)	박정애(59)	박정숙(68)	정순희(53)	우정애(70)	김영미	정연수
현민숙(81)	신가윤(59)	오세종(68)	이병림(55)	전정숙(71)	김영주	정연수
현영화(81)	윤혜숙(59)	원사덕(68)	이신덕(57)	박경임(73)	김정순	정한숙
이승희(84)	황을숙(59)	원사덕(68)	손경희(58)	이혜원(83)	김종옥	정혜숙
문상애(95)	고순환(60)	장경희(68)	김형복(59)	이윤경(90)	김지혜	정휘숙
태정현(05)	김보근(60)	전명숙(68)	정순희(59)	최유진(00)	김지혜	조향
조연실(06)	김형례(60)	김덕길(69)	김혜자(60)	김정은(06)	김호정	주성민
최은진	문순이(60)	김일희(69)	전은수(60)	이지수(15)	김효영	주영미
	민경남(60)	박성숙(69)	정은희(60)		노경혜	채문숙
간호대학	유선경(60)	오정순(69)	예경혜(61)	소비자인간발달학과	노용	최애자
간호학과	이주화(60)	이위영(69)	오소임(61)	하진(05)	문화자	최영희
남상옥(62)	장현숙(60)	정인숙(69)	박선자(62)	고복희(13)	박복자	최영희
오나미혜(64)	정휘숙(60)	신옥희(70)	박정희(62)	박지윤(13)	박복자	최은주
김진향(73)	한영숙(60)	박정아(71)	박혜경(63)		박복자	최인숙
조순옥(74)	한영숙(60)	고영순(72)	이영예(63)	국제학부	박영희	최일연
유병국(75)	허경순(60)	윤연숙(72)	임경희(63)	국제학과	박정애	최정진
조혜숙(76)	황명순(60)	이종숙(72)	한정숙(63)	최수안(06)	박현주	최주희
양숙자(81)	고경희(61)	정준순(72)	김용자(64)	민수아(09)	박효진	최희경
변은경(83)	고화영(61)	하명희(72)	윤송자(64)	김근영(10)	백령자	하영자
임미림(90)	김덕희(61)	감정순(73)	강민영(65)		백영자	하영자
최혜은(98)	김덕희(61)	오영주(74)	문숙희(65)	대학원	서연경	한지희
임효련(07)	김옥녀(61)	오용순(75)	박부자(65)	이은정(75)	서진희	허은주
길민지(10)	김옥녀(61)	박영혜(77)	박정자A(65)	김영자(12)	손경순	
	김춘숙(61)	박하영(77)	김종화(66)	박정례(12)	손영애	기타 이름미상
약학대학	민영례(61)	정현숙(77)	윤춘자(66)		신경희	(73명)
약학과	신경희(61)	이미애(79)	조규화(66)	디자인대학원	신명자	
문은선(49)	유경숙(61)	최길자(79)	최민자(67)	장규순(89)	신지원	
장재옥(49)	이남우(61)	이정자(81)	김광숙(68)	박경아	안미란	
최혜정(49)	전숙희(61)	지선옥(83)	배계현(68)	이은경	양경희	

국내 지회	해외 지회		
대구 600,000원	내슈빌 (200불) 228,660원	임미경(영문 88) 이현서(국악 93) 김미경(국제사무 96)	차희숙(체육 77) 김영례(심리 79) 김경원(가관 81) 장명옥(영문 81) 최정원(식영 85) 최인옥(체육 87) 이미애(성악 89) 김성숙(교공 92)
순천 660,000원 김연자(가정 59) 강초례(가정 63) 조정자(국문 63) 조영숙(화학 67) 김경인(동양 74) 홍선란(교육 74) 유종희(사학 75) 고명선(영문 76) 박금희(물리 76) 최영자(사회 77) 김명석(작곡 79) 나연희(경영 79) 황경숙(체육 79) 서혜석(영문 81) 유숙영(법학 85) 윤지연(간호 85) 고선영(외교 86) 최정순(커미부 87) 신경화(조소 88) 홍기은(교공 88) 김수진(경영 91) 이유진(섬예 95)	뉴욕 (500불) 570,000원 멜버른 83,845원(15년분) 103,837원(16년분) 북가주 (500불) 570,000원 세인트루이스 (336불) 383,040원 최경선(영문 61) 이수자(가정 63) 한정자(교육 63) 송경자(약학 65) 정선주(성악 68) 선재숙(의학 72) 남진우(간호 73) 양혜자(심리 74) 김혜영(간호 79) 최혜영(생미 86) 이명아(피아노 90)	시애틀 (300불) 315,780원 신시내티 (330불) 356,628원 도미용(약학 56) 김영채(영문 59) 권숙자(의학 67) 김진희(기악 68) 김혜선(외교 69) 배영자(커미부 69) 이현숙(간호 69) 황은신(생미 70) 강순명(약학 71) 하현숙(법학 71) 변혜경(조소 73)	오레곤 1,143,750원 오타와 300,000원 일본 420,000원 김정숙(체육 50) 정정자(커미부 65) 정태영(생미 69) 최영숙(체육 69) 고정희(장미 74) 최순희(사학 78) 백선미(체육 80) 신주리(장미 84) 나정윤(동양 88) 김덕희(도예 92) 이목미(유교 93) 성민영(수학 95) 임혜선(영교 98) 고나리(커미부 05)
전주 570,000원 차인자(영문 50) 유재신(생명 59) 이순례(수학 59) 김영원(피아노 61) 국혜원(사학 62) 조덕이(생명 63) 이주자(사교 67) 박숙희(교공 70) 안명옥(심리 70) 이전숙(의직 70) 이영혜(의학 72) 기영석(국제사무 73) 손숙희(작곡 73) 심창교(물리 75) 오경안(법학 75) 정순임(식영 75) 최희윤(불문 85) 정향숙(사복 86) 강진아(중문 94)	시드니 432,145원 장기숙(사회 63) 이길자(화학 65) 박청자(기독 67) 김영숙(약학 68) 김숙희(의직 69) 김성경(관현 71) 양혜자(문정 71) 이전희(가정 72) 이명란(사학 73) 김봉희(서양 74) 권영규(생명 75) 이정실(제약 75) 황혜자(교공 76) 김영근(사교 78) 반계옥(사회 78) 조경화(사교 79) 유승희(영문 83) 신은섭(법학 84) 이선아(국악 85) 정혜원(사학 86) 황귀연(생미 87)	애틀랜타 (1,000불) 1,140,000원 오은경(교육 54) 김숙자(체육 57) 김인자(영문 53입) 김난경(국문 59) 진원숙(국문 59) 정정남(불문 61) 정호문(불문 62) 김아자(의학 63) 이혜선(피아노 64) 정제니(영문 64) 조성숙(가정 64) 강혜정(커미부 65) 김명은(조소 65) 김정숙(사학 65) 김혜경(영문 65) 어영희(사학 65) 김순희(법학 66) 정문자(의학 66) 홍정자(의학 66) 장석란(서양 68) 계원옥(수학 69) 박영애(서양 70) 장윤심(식영 70) 조후자(의학 70) 이복희(섬예 75) 조수현(수학 76)	토론토 (500불) 570,000원 홍콩 (HKD 9,600) 1,425,408원 방혜자(교육 66) HKD200 이명희(무용 68) HKD2,000 윤미기(불문 75) HKD200 최명성(교공 76) HKD200 김승애(가관 79) HKD200 임혜경(커미부 79) HKD200 김성희(피아노 81) HKD200 임미도(관현 81) HKD200 정도경(사복 81) HKD5,000 문은명(조소 89) HKD200 한유미(보교 90) HKD200 이희연(관현 94) HKD200 김희선(섬예 01) HKD200 전우리(산더 07) HKD200 한혜린(법학 09) HKD200

isoi



선영아

0.1%의 나쁜 성분도
넣고 싶지 않을 만큼

사랑해



3년 연속
에센스 부문
1위*

아이소이 잡티로즈세럼

유해성분에 반대합니다 - isoi

16년 전, 거리를 수놓았던 '선영아 사랑해'를 기억하시나요?
여성들에게 다시 한번 따뜻한 힘을 주고, 건강한 피부를 지켜주고자
또 다시 '선영아 사랑해'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아이소이!
지금 모습 그대로 사랑받아 마땅한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을 위해
천연유래 화장품 아이소이가 피부의 진실한 변화를 약속합니다.



국내 브랜드 최초
미국 EWG Verified™ 획득



독일 알러지테스트
Excellent 등급 획득



미국 프리미엄 유기농
마켓 홀푸드 입점



isoi 독일연구소만의
독보적인 블렌딩 노하우

미래를 함께 하는
여행 금융

신한금융그룹

써니 마이카

손만 대면 쉽고 간편하게 내 차 마련!

S-미래설계

손만 대면 한순간에 노후준비가 착착!



스마트 라운지

손만 대면 밤낮없이 열리는 무인 은행 창구!

손이 가는 대로! 손이 닿는 데로! 신한의 디지털금융이 ON다

언제나, 어디서나 손쉽게 열리는 디지털금융으로
신한은행이 또 한 번 앞서갑니다



2016 대한민국 베스트 디지털 은행
글로벌파이낸스(Global Finance) 선정

별도 법적 계약이 있는 한 신한금융그룹 내 계열사는 상호의 차별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주)신한은행, (주)신한생명, (주)신한금융투자는 예금자보호법상
부보대상 금융기관이며 주)신한카드는 부보대상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 주)한국시민 시장심사필 제2016-2-1047호(2016.09.22~2018.08.31)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신한은행

최고의 성혼율 S노블



“Looking for spouse?”

참 한결같은 S노블

아무나 가입을 허락하지 않고 합부로 만남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당신께 100% 만족을 드리기 위해, 당신에게 꼭 맞는 만남을 찾고자 노력하는 S노블

만족의 크기가 다릅니다. 1%의 만남을 위한 100%의 약속, S노블

성혼시까지 무기한·무제한 결혼정보 서비스로 성혼을 책임집니다.

SINCE1999

www.snoble.com

이화여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히 모시겠습니다. 02.3445.4777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01-7번지 패밀리빌딩 2F | 결혼증개업 신고번호 : 강남080045

대한민국 최초 상류층 결혼정보클럽
S Noble
SINCE 1999